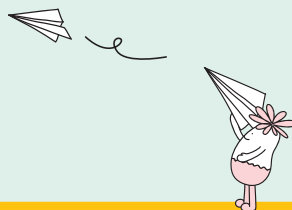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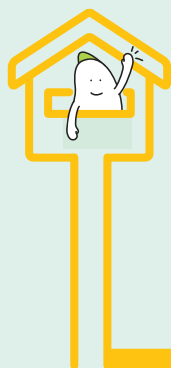


완벽한 자율학습서
완자

자습서 정답친해

중등국어 1-1



갈래 펼치기



시

본문 006~007쪽

1 (1) ○ (2) ○ (3) × 2 (1) 운율 (2) 반복 (3) 말하는 이
3 ① 4 (1) ㉠ (2) ㉡ (3) ㉢ (4) ㉣ 5 상징 6 ③

1 (1) 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의미적 요소인 '주제', 음악적 요소인 '운율', 회화적 요소인 '심상'이다.
(2) 운율을 형성할 때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른 인물이나 사물일 수도 있다.

2 (1)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하며, 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 시에서 운율은 주로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절 수와 음보의 반복으로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3) 시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말하는 이라고 한다.

3 시는 행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인의 정서나 생각을 압축하여 표현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여 시를 읽으면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소설의 특징이다.

4 (1) 청각적 심상인 '휘파람 소리'를 시각적 심상인 '푸른'으로 표현했으므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차가운 감각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촉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3) '쓰디쓰다'는 몸이 쓴 맛이다. 이는 혀로 느끼는 것으로 미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4) 들장미의 색이 붉은 것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5 추상적인 원관념을 구체적인 보조 관념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상징이다.

6 <보기>는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였으며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은유법이 사용된 것은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비유한 ③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듯이', '~같은' 등의 말을 사용한 직유법이 쓰였다.

⑤ 사람이 아닌 '시계'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다.



소설

본문 008~009쪽

1 (1) × (2) × (3) ○ 2 (1) 문체 (2) 절정 (3) 모방성
3 ① 4 (1) 1인칭 주인공 (2) 직접적 제시 5 전지적 작가 시점 6 ②

1 (1) 소설 구성의 3요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해당되며 '주제, 구성, 문체'는 소설의 3요소이다.
(2)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쓴 이야기로 허구적 이야기이다.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은 수필이다.
(3) 소설 구성의 요소에서 인물이 활동하는 시간과 공간은 배경이다.

2 (1) 작가 고유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장 표현 방식을 문체라고 한다.
(2)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3) 소설의 특성 중 '모방성'은 소설이 허구의 문학이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한다는 것이다.

3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극 문학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인 이유 ② 소설은 허구적이지만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하는 모방성을 띤다.

③, ④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성이 있다.

⑤ 소설은 현실에서 있을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4 (1)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다.

(2)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해 주는 방식은 직접적 제시이다.

5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주인공인 '수남'의 심리 상태까지 알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보기>에서는 '임금님'은 '우투리'의 부모님에게 '우투리'의 소재를 물으며 다그치고 있고, '우투리'의 부모님은 말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따라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우투리 설화

아기 장수인 우투리가 콩·팥 등의 곡식을 가지고 바위 속에 들어가 새 나라를 세우려고 수련하였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로, 이성계로 대표되는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담고 있는 조선 시대의 설화이다.



수필

● 본문 010쪽

- 1 (1) ○ (2) × (3) ○ 2 (1) 중수필 (2) 소설 (3) 자기 고백적 3 ④

1 (1) 수필은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특성이 있다.

(2)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 쓰는 글로, 수필 안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3)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 담긴 글로 글쓴이의 관심사나 가치관, 문체 등의 개성이 드러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상할 수 있다.

2 (1) 중수필은 사회적, 시사적 문제를 다루며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수필과 소설은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며, 줄거로 된 산문 문학이며,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3) 수필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고백적 특징이 있다.

3 정보를 쉽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극

● 본문 011쪽

- 1 (1) 대단원 (2) 희곡, 시나리오 (3) 장면(S#) 2 지시문 3 ④

1 (1) 극 문학은 발단 - 전개 - 절정 - 하강 - 대단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벌어졌던 사건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는 대단원이다.

(2) 극 문학에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으며,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상연을 목적으로 한 대본이라는 차이가 있다.

(3) 시나리오는 장면(S#)으로 구성된다.

시나리오의 '장면'

시나리오의 '장면'은 'S#(scene number)'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영화를 구성하는 단위인 장면의 번호를 의미하며, 각 장면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예) S# 15. 병원 진료실 / 오후

S# 16. 병원 앞 거리 / 오후

참고 자료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이다.

3 극은 작가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쓴 글이다. 작가가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진솔하게 표현한 글은 수필이다.



설명하는 글

● 본문 012쪽

- 1 (1) 이해 (2) 정보나 지식 (3) 처음 (4) 명료성 2 ③ 3 ②

1 (1)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3)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는 글을 쓴 동기, 목적, 방향 등이 제시된다.

(4) 설명하는 글은 전달하려는 바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명료성이라고 한다.

2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이다.

3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객관성을 특징으로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명하는 글은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료성을 띤다.

④ 설명하는 글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⑤ 설명하는 글은 일정한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체계성을 띤다.



주장하는 글

● 본문 013쪽

- 1 ⑤ 2 (1) 서론 (2) 사실, 의견 3 ②

1 <보기>는 주장하는 글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하는 글의 특성은 설득성이다.

2 (1)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서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을 밝힌다.

(2)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의견과 객관적인 사실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3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이다.

오답인 이유 ① 주장하는 글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전개하는 글로, 글쓴이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는 소설이나 극이다.

③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④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생각인 주장이 드러나는 글로, 글쓴이의 생각을 가급적 배제해야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⑤ 글쓴이의 정서를 운율이 느껴지는 언어로 표현한 글은 시이다.

건의하는 글

● 본문 014쪽

1 (1) × (2) ○ (3) ○ 2 (1) 건의 대상 (2) 예의 3 ③

1 (1) 건의하는 글은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구성되며 글을 쓴 목적은 '처음'에 제시된다.

(2) 건의하는 글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3) 건의하는 글의 내용 요소에는 문제 상황이 해결됐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기대 효과가 있다.

2 (1) 건의하는 글의 내용 요소 중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자 글의 독자는 건의 대상이다.

(2) 건의하는 글을 쓸 때에는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3 글쓴이가 전달하는 지식의 이해를 목적으로 읽어야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토론

● 본문 015쪽

1 (1) ○ (2) ○ (3) × 2 (1) 사회자 (2) 근거 3 ⑤

1 (1) 토론의 논제는 토론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제로, 찬성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논제의 조건

참고 자료 ●

-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것이어야 한다.
-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 한쪽에 유리하거나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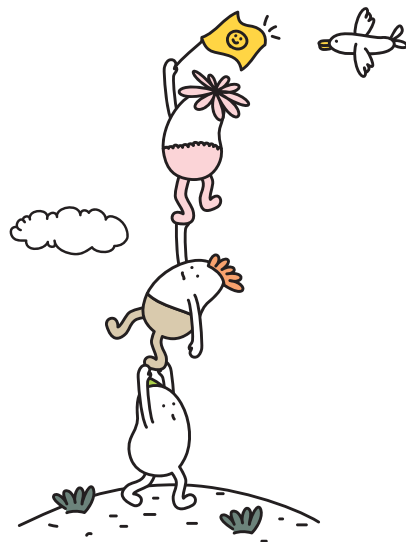
(2) 토론의 청중은 토론을 관람하는 사람으로 토론자들의 주장을 평가하기도 한다.

(3) 토론의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어 가야 한다.

2 (1) 사회자는 토론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토론의 논제와 규칙, 순서를 제시하며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한다.

(2)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토론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며, 발언 시간이나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





마음을 움직이는 글

(1) 비유 표현

확인 문제

● 023쪽

023쪽 | 1 ④ 2 ③ 3 빛나간 야구공 하나
4 ⑤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과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유성을 보고 있다. 말하는 이는 ‘밤하늘’의 모습을 ‘운동장’으로, ‘유성’의 모습을 율타리를 벗어난 ‘야구공’에 비유하여 대상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2 비유를 사용하면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술형** 이 시에서는 별들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빛나간 야구공 하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빛나간 야구공’은 운동장 율타리를 벗어난 공이다. ‘유성’과 빛나간 ‘야구공’은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4 이 시의 1~2행에서는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에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은유법이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오답인 이유 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활유법이다.

②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비유의 방법은 대유법이다.

③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한다.

④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한다.

소단원 평가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③
06 ㉠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은 은유법으로, 원관념 ‘유성’을 보조관념 ‘빛나간 야구공’으로 표현하였다. 07 ⑤ 08 ②
09 의인법을 사용하여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10 ⑤ 11 ⑤

01 이 시는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진다.’,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등에서 시각적 심상을, ‘아득히 들리는 함성’, ‘먼 곳에서 아슴푸레 빈 우레 소리 들리더니’ 등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심상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한 장소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과 이를 가로질러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시에는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말하는 이는 유성이 떨어지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지는 않았다.

④ 말하는 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02 ‘쨍그랑 / 유리창을 깨고 / 포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라는 시구에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유성의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에서 무한에 대한 동경,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존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03 이 시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로 표현하여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말하는 이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보며 별들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③ 이 시는 유성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쨍그랑 / 유리창을 깨고 / 포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는 유성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하는 이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순간임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⑤ 말하는 이는 ‘운동회를 벌였나’라고 하여,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하지만 말하는 이가 직접 운동회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아니며,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04 [A]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한 것이고, <보기>는 일상 언어로 밤하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A]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별을 참신하고 인상 깊게 표현하여 별과 별이 가득한 밤하늘에 대해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어 밤하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⑤는 비유를 사용하여 얻은 효과와 거리가 멀다.

05 ‘아득히 들리는 함성,’은 별들이 마치 사람처럼 함성을 지른다고 표현한 것으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인 이유 ① 직유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② 은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다른 대상을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④ 대유법은 '흰옷'으로 우리 민족을, '백의(白衣)의 천사'로 간호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⑤ 풍유법은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방법이다.

06 서술형 ㉠은 '유성'(원관념)을 '빛나간 야구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표현 방법의 종류를 은유법이라고 썼다.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각각 정확하게 썼다.	☐



완자쟁의 풀이

은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다른 대상을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 '봄은 고양이로다'와 같은 구절을 예로 들 수 있어.

07 (나)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봄의 느낌을 표현한 시로, 포근하고 따뜻하며 생명력이 가득한 봄의 분위기를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원관념 '봄'을 보조 관념 '고양이'에 비유하여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고양이를 봄에 비유하여 고양이의 생명력을 드러냈다고 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8 시를 읽을 때에는 운율을 느끼며 읽고,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시를 감상하는 방법

- 운율과 상상,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는다.
- 시의 표현 방식에 담긴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 주제와 연관 지어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시적 상황과 그에 대한 말하는 이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참고 자료

09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가)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개체인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표현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썼다.	☐
표현 효과를 시에 생동감을 주는 것으로 정확하게 썼다.	☐

10 (나)의 말하는 이는 '고양이의 털'에서 '봄의 향기(향기로움)'를 '고양이의 눈'에서 '봄의 불길(생명력)'을 '고양이의 입술'에서 '봄의 줄음(포근함)'을 '고양이의 수염'에서 '봄의 생기(생동감)'를 떠올리고 있다. 시에 나타난 날카로움은 '봄'에 대해 느낀 것이 아니라 보조 관념인 '고양이'의 수염에 대한 것

이다.

11 ㉠에서는 '고양이의 털'이 지닌 부드러움을 '꽃가루'에 빗대어 '고양이의 털'과 '고운 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이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인 직유법이 사용된 것이다. ㉡에서도 '같이'라는 말이 나타나므로 직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사물인 '꽃'이 사람처럼 웃는다고 표현하였기에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다.

② '내 마음'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호수'를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이 사용된 것이다.

③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다. 속담은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풍유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④ 사물인 '강물'이 사람처럼 말이 없다고 표현하였기에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다.

(2) 상징 표현

확인 문제

● 037쪽

037쪽 1 ① 2 깊고 붉은 상처 3 ② 4 ④

1 이 시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시상은 시의 내용에 따라 전개된다.

오답인 이유 ② 이 시의 시어인 '진눈깨비', '함박눈', '편지', '새살' 등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하는 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자', '~지 말자' 등의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말하는 이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듣는 이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한다.

④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긍정적 의미의 시어인 '함박눈', '편지', '새살' 등과 부정적 의미의 시어인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 등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서술형 '함박눈'의 흰색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는 시구는 '깊고 붉은 상처'로, '잠 못 든 이'가 겪는 현실의 절망적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며 붉은 색 이미지가 나타난다.

3 이 시에서 긍정적 의미의 시어는 '함박눈', '편지', '새살'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 용기,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반대로 부정적 의미의 시어는 '진눈깨비', '바람', '가장 낮은 곳', '깊고 붉은 상처' 등이 있다. 이는 무관심, 외면, 고통, 절망, 좌절, 슬픔 등을 상징한다.

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진눈깨비'가 아닌 '함박눈'이 되고, '잠 못 든 이'의 '편지'와 '새살'이 되자고 하고 있다. 이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이웃을 배려하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046~047쪽

-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5 ③
06 ② 07 ③ 08 ③ 09 '작은 것'은 '달'을 지칭하며, 이는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
10 ③

01 이 시에는 '쭈빋쭈빋'이라는 의태어가 쓰여진 했지만,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진눈깨비, 가장 낮은 곳, 함박눈, 잠 못 든 이, 편지, 깊고 붉은 상처' 등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③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 '함박눈, 편지, 새살'과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가 대립되어 나타난다.

④ '우리가 눈발이라면 ... ~자'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되지 말자', '~되어 내리자', '~되자'는 모두 '-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스스로 다짐하게 하는 한편, 듣는 이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한다. 이처럼 청유형 어미는 어떤 행동을 권유하는 것이나, 명령처럼 강제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이 시에서 '함박눈'은 '따뜻한 함박눈'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이다. 반면 '진눈깨비'는 '쭈빋쭈빋' 흘날리는 존재로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존재이다. 즉, '함박눈'과 '진눈깨비'는 대조적인 시어이며 '함박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존재는 '진눈깨비'뿐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읽는 이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잠 못 든 이'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편지'는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상징한다.

⑤ '깊고 붉은 상처'는 현실의 절망적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며, '새살'은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04 '잠 못 든 이'는 현실의 어려움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동안 아끼며 모은 돈으로 사업체를 차린 청년'은 현재 삶이 나아지는 중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것이므로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05 '가장 낮은 곳'은 말하는 이가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하는 공간이므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행복한 존재로 볼 수 없다.

06 (가)에는 '진눈깨비', '가장 낮은 곳', '함박눈' 등에, (나)에는 '구름', '바람', '물', '꽃', '풀', '바위' 등에 상징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가)에서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나)에서는 정직하고 청렴하며, 변치 않고 의연하며, 포용하고 과묵한 삶의 태도에 대한 지향은 이와 같은 상징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상징이란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오답인 이유 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의인법이다.

③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활유법이다.

④ 대상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은 대유법이다.

⑤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은 은유법이다.



완자샘의 풀이

(가)와 (나)에 사용된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참고 자료

상징의 효과

-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작품을 새롭게 보게 한다.
- 대상의 의미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07 (가)의 말하는 이는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삶을 소망하고 있다. ③의 '따뜻한 함박눈'은 말하는 이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용기, 격려, 희망을 주는 존재이다. 반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가장 낮은 곳', '잠 못 든 이',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는 모두 부정적인 시어로 현실의 고통, 좌절, 슬픔 등을 상징한다.

08 (나)는 '오우가'로, 다섯 자연물을 찬양하는 내용의 연시조이다. 제2수에서는 깨끗하고 그침이 없는 '물'의 영원한 생명력을 찬양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구름'은 빛은 깨끗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고 하였다.

- ② '바람'은 소리는 맑으나 그칠 적이 많다고 하였다.
 ④ '꽃'은 피면서 쉽게 진다고 하였다.
 ⑤ '풀'은 푸른 듯하면서 금방 누렇게 시든다고 하였다.

09 서술형 (나)의 '작은 것'은 밤에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는 '밤중의 광명'을 내는 것이므로 '달'을 지칭한다. 이때의 '달'은 온 세상을 비추는 포용하는 태도와 보고도 말하지 않는 과묵한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지칭하는 자연물을 '달'로 정확하게 썼다.	☐
이 시에서 '달'이 상징하는 것이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임을 썼다.	☐

10 ㉠은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쉽게 지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하여 변하지 않는 '바위'의 태도를 찬양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말하는 이는 쉽게 변하는 사람들, 즉 신념이나 절개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자료 찾으며 책 읽기

소단원 평가



062~063쪽

- 01** ⑤ **02** ⑤ **03** 서평 **04** ② **05** ④
06 ③ **07** ② **08**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09** ③ **10** ⑤ **11** ㄷ, ㄹ **12** ④

01 책을 고를 때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읽기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모둠 구성원과 함께 책을 읽을 때 서로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끼리 모둠을 구성하게 되면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끼리 모둠을 구성해야 모두가 만족하면서도 원활하게 책을 선정할 수 있다.

02 '정우'는 조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나라'의 말을 듣고, 앞으로의 환경 보호 실천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책을 읽자고 한 뒤에 이어질 말은 환경 보호 실천과 관련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서술형 서평은 책의 내용을 평가한 글을 말한다. 서평을 읽으면 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으므로, 책을 고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완자샘의 풀이

주관식 문제를 풀 때 '음절'과 '어절'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예를 들어 2음절은 글자가 두 글자라는 의미야. '나비'는 2음절이라고 할 수 있어. 한편 2어절은 단어가 두 개라는 의미야. '예쁜 나비'가 2어절의 예라고 할 수 있지.

04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 분야, 읽기 수준, 읽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어려운 낱말이 많이 사용된 책을 고르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게 쉬운 낱말이 사용된 책, 적절한 분량으로 읽기 쉬운 책 등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답안 이유 ①, ⑤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읽을 수 있는 분량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③, ④ 모둠 구성원과 함께 책을 읽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야 한다.

05 <보기>에서 '불빛 때문에 매미가 밤을 낮으로 착각하여 밤에도 울어댄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탓해야 할 대상은 매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기>는 독서 일지의 항목 중,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느낀 점에 해당한다.

06 책을 읽다가 낱선 낱말이 나오거나 모르는 개념,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가며 읽는 것이 좋다. 자료를 찾아 가며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07 <보기>는 '불야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학생은 낱말의 뜻을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답안 이유 ① <보기>에 빛 공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영상 자료가 아닌 문헌 자료이다.

③ <보기>를 통해 '불야성'이 중국의 성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 '불야성'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보기>에 인공조명과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서술형 자료를 찾아 가며 책을 읽으면 모르는 낱말을 알 수 있고, 모르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관련된 다른 지식까지도 추가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9 '책 읽기 경험 나누기'는 책을 읽은 후 모둠 구성원과 함께 책과 관련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하여,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한편 책이 모두 구성원의 읽기 수준에 적당한지를 고려하는 것은 '책 선정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10 모두 구성원이 모여 책 읽기 경험을 공유하면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책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1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쓰면 책의 줄거리를 더욱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ㄷ), 생각을 넓고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끼리 함께 책을 읽은 경우에는 독후감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다(ㄹ).

오답인 이유 ㄱ. 독후감을 쓸 때는 전체를 크게 3~5문단으로 나누고 문단마다 소재목을 붙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글 전체를 한 문단으로 쓰면 문단별로 내용이 나누어지지 않아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ㄴ. 독후감을 쓸 때는 책의 줄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난 후의 감상, 깨달게 된 점 등을 함께 써야 한다.

12 <보기>의 독후감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어 살았던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느낀 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쓰게 한 질문은 '책을 읽은 후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써 보자.'가 가장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072~077쪽

- | | | | |
|-------------|-------------|--------------------------------|----------------------------------|
| 01 ③ | 02 ① | 03 ④ | 04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봄. |
| 05 ③ | 06 ① | 07 ③ | |
| 08 ④ | 09 ③ | 10 하이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 |
| 11 ④ | 12 ⑤ | 13 ④ | 14 ⑤ |
| 15 ③ | 16 ⑤ | 17 ㉠, ㉡, ㉢ | 18 ⑤ |
| 19 ④ | 20 ④ | 21 ② | 22 ③ |
| 23 ④ | 24 ③ | 25 ④ | 26 ⑤ |
| 27 ② | | | |

01 시를 감상할 때는 시상 전개 과정, 표현 방법, 시의 분위기, 시어의 의미, 운율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지만, 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0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이 떨어지는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으므로, '빈 우레 소리'는 말하는 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유성이 나타나려는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말하는 이가 밤하늘의 모습을 '밤하늘은 / 별들의 운동장'이라고 비유한 것으로 보아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을 것이다.

③ 말하는 이는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인 '빛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말하는 이는 밤하늘의 별과 '유성'을 보며 이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말하는 이는 '유성'을 '빛나간 야구공'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유성'과 '빛나간 야구공'이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03 '밤하늘은 / 별들의 운동장', '빛나간 야구공 하나'에는 은유법이,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운동회를 벌였다 / 아득히 들리는 함성,'에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

오답인 이유 ㄱ.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은 대유법이다.

ㄷ.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은 직유법이다.



완자쌤의 풀이

은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다른 대상을 써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한편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지.

04  이 시의 내용상, 시상 전개는 크게 1~3행과 4~10행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자는 1~3행에서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4~10행에서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이라는 내용을 썼다.	☐
4~10행과 같은 문장 형식으로 썼다.	☐

05 비유 표현은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여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또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생생한 느낌을 준다. 이 시에서는 '유성'을 '빛나간 야구공'에 비유하여 참신하게 표현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고 있다.

06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은유법으로, 은유법은 비유에 해당한다. 비유란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방법으로, 비유의 종류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오답인 이유 ②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는 방법은 공감각적 표현이다.

③ 반어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글에 신선함을 줄 수 있다.

④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은 상징법에 관한 설명이다.

⑤ 도치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시인의 의도나 정서를 강조할 수 있다.

07 [A]의 '아득히 들리는 함성', '먼 곳에서 아슬푸레 빈 우레 소리 들리더니'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유성이 나타나려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시의 심상

- 시각적 심상(눈): 모양이나 빛깔과 관련된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 청각적 심상(귀): 소리와 관련된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 미각적 심상(입): 맛과 관련된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 후각적 심상(코): 냄새와 관련된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 촉각적 심상(피부): 감촉과 관련된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 공감각적 심상: 시어들의 묶음을 통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져 두 가지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느낌

참고 자료

08 (나)의 말하는 이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봄의 느낌을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는 '고양이의 털'에서 '봄의 향기'를 떠올렸으며, 2연에서는 '고양이의 눈'에서 '봄의 불길(생명력)'을, 3연에서는 '고양이의 입술'에서 '봄의 줄음'을, 4연에서는 '고양이의 수염'에서 '봄의 생기'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시의 전체 내용상 나, '고양이의 눈'에서 떠올린 '봄의 불길'을 '봄의 번덕스러움'으로 느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은유법으로, '무엇(A)은 무엇(B)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을 비스한 특성을 가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므로, '꽃이 웃는다'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에 해당한다.

②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므로,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풍유법에 해당한다.

④ '활활활 깃을 치는 청산이 좋이라'는 '청산'을 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이다.

⑤ '달 달 무슨 달 / 쟁반같이 둥근 달'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한 직유법이다.

10 **서술형** ㉠은 '고양이의 눈'을 '금방울'에 비유한 것으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직유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기>에서는 '눈송이처럼 날리네'에서 '처럼'을 사용한 직유법이 나타난다.

1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하였으며,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 새살이 되자'라고 하였다. 이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려는 말하는 이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 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대비되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는 '함박눈, 편지, 새살'로,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상징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는 '진눈깨비, 바람, 가장 낮은 곳, 깊고 붉은 상처'로, 무관심, 외면, 고통, 절망, 슬픔 등을 상징한다.

13 이 시는 현실을 삭막하고 고달픈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안도현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다.

② '진눈깨비, 함박눈, 새살' 등 상징적 의미의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③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에서 삭막하고 고달픈 현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⑤ 말하는 이는 '나는 되지 말자', '~되어 내리자', '~되자'와 같은 청유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14 ㉠에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즉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함박눈'은 흰색의 이미지이고 '깊고 붉은 상처'는 붉은 색의 이미지이므로 서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②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와 '편지가 되고', '새살이 되자'는 모두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말이다.

③ ㉠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말하는 이가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④ '-자'로 끝나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듣는 이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15 이 시에서 '진눈깨비'는 부정적인, '함박눈'은 긍정적인 시어로서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에는 '대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인은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우리'를 '눈발'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에는 '우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비교와 대조의 차이점

비교	대상들 사이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
대조	대상들 사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

16 (나)의 '꽃'은 '피면서 쉬어 지'는 존재로, 변하지 않는 '바위'의 속성과 대비되는 부정적 존재이다. 따라서 '꽃'은 쉽게

변하는 것으로, 시류에 영합하여 자주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완자쌤의 풀이

(나) '오우가'는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예찬하는 대상의 긍정적인 속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예를 들어 제2수에서는 '물'의 깨끗하고도 그치지 않는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물'과 상반되는 특성을 지닌 '구름'과 '바람'을 제시하였지.

17 **서술형** (가)에 사용된 시어는 이웃에 대한 격려, 위로, 희망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와, 시련, 고통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구분된다.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는 ㉠ '함박눈', ㉡ '편지', ㉢ '새살'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는 ㉣ '진눈깨비', ㉤ '바람', ㉥ '깊고 붉은 상처'이다.

18 <보기>를 통해 (가)에서 '함박눈'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징은 대상이 지닌 본래의 뜻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는 방법임을 추론할 수 있다.

19 (나)는 자연의 다섯 벼를 찬양하는 내용의 연시조이다. 제2수에 나타나는 '바람'은 그치지 않는 '물'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오답인 이유 ① 오우가는 총 6수로 된 연시조이며, 제시된 (나)에도 이미 3수의 시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시조임을 알 수 있다.

② 제2수는 '물', 제3수는 '바위', 제6수는 '달'을 예찬하며 전개되고 있다.

③ 시인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이를 상징하는 자연물을 예찬하면서 드러내고 있다.

⑤ 제6수에서는 밤중에 떠서 만물을 비추는 작은 것, 즉 '달'의 남을 포용하면서도 과묵한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20 (나)에서 '물'은 깨끗하고 그칠 때 없다고 하였으므로 정직하고 청렴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한다. '달'은 만물을 다 비추고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를 상징한다. ④에서, 과묵한 태도를 가진 것은 '바위'가 아니라 '달'이다.

21 모듬이 함께 책 읽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책을 선정하고,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은 후, 책 읽기 경험을 나누며, 이를 바탕으로 독후감을 쓰는 과정을 거친다.

22 모듬이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 혼자만 좋아하는 분야보다 모듬 구성원이 함께 정한 분야의 책을 선택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청소년인 모듬 구성원의 공감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였다.

② 모듬 구성원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④ 한 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모듬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분량의 책을 선정하였다.

⑤ 모듬에서 정한 분야와 관련하여 책을 선정하였다.



완자쌤의 풀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선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23 '자료 찾으며 책 읽기'를 할 때는 읽을 책을 선정하고, 독서 일지를 활용하고 책을 읽으며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다양한 매체에서 찾으며 참고한다. 또한 책을 읽은 후에는 친구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듬 구성원들이 모여 한 글자씩 함께 읽는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4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때 도움이 되고,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또 독서 일지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독후감을 작성하게 된다는 내용은 독서 일지를 쓸 때의 효과와 거리가 멀다.

25 책을 읽으며 낯선 개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자료를 찾을 때는 사전, 도서관, 신문 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공조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변화한 거리에 나간 것은 책의 주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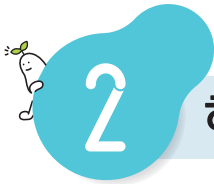
26 (가)와 (나)는 시 작품으로, 이와 같은 시를 읽을 때는 시의 운율,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의 효과, 시상 전개, 시어의 의미 등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다. (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연에서 동일한 문장 구조가 나타나지는 확인할 필요는 없다.

27 (나)에서 '바람'은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에서 쓰인 것으로, 삭막하고 고달픈 현실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시어이다. 따라서 '바람'을 통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눈발'이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제목을 통해 눈이 날리는 풍경을 떠올리며 시의 내용을 상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 (나)는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시이다.

⑤ (나)에는 상징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헤아려 읽고, 맞추어 쓰고

(1) 예측하며 읽기

확인 문제

● 085~089쪽

- ① 085쪽 | 1 ② 2 ① 3 ⑤
 ② 087쪽 | 4 ⑤ 5 ⑤ 6 가설 검증 바이어스
 ③ 089쪽 | 7 가설 검증 바이어스 8 ⑤ 9 ④

1 예측하며 읽기 전략은 ‘읽기 전’ 활동뿐만 아니라 ‘읽는 중’, ‘읽은 후’ 과정에서도 계속 활용될 수 있다. 예측하며 글을 읽으면 글에 집중하며 읽을 수 있고,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한다.

2 <보기>에서 ‘나라’는 책의 차례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차례에는 책의 소제목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구성과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볼 수 있다.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 가능한 요소

글을 예측하며 읽을 때에는 독자의 배경지식,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 글쓴이와 관련된 정보, 차례에 드러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3 ‘읽기 전’ 활동에는 읽는 목적 확인하기, 책의 내용 예측하기 등이 있는데, 이때의 예측하기 활동은 제목, 차례, 글쓴이에 대한 정보, 표지의 그림 등을 보고 책의 내용을 추측하며 읽는 것이 해당된다. ⑤는 ‘읽은 후’의 활동에 해당된다.

읽기의 과정과 원리(전략)

참고 자료

읽기 과정	원리(전략)
읽기 전	읽는 목적 확인하기, 예측하기, 배경지식 떠올리며 질문 만들어 보기 등
읽는 중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미리 만들었던 질문의 답 찾기, 각 부분의 내용 요약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 파악하기 등
읽은 후	내용 요약하기, 내용 구조도 만들기, 알게 된 내용 및 더 알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관련된 다른 글 찾아 읽기, 읽기 과정 점검하기 등

4 과거에 본 다큐멘터리는 독자의 경험이자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⑤에서 ‘나라’는 글의 앞 부분을 읽고 자신이 본 다큐멘터리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독자가 ‘바이어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전을 찾아 그 뜻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배경지식을 지

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글의 갈래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예측한 것이다.

③ 책의 제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④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5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여러 행동 중에서 자기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하며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제멋대로 확신한다고 하였으므로, 첫인상을 결정할 때 자신이 내린 판단이 들어맞지 않는 정보도 받아들인다는 설명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사람들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② 사람들이 첫인상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 정도이다.

③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잣대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④ 우리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도 상대의 첫인상을 무리 없이 형성하며, 우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첫인상만으로 상대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하였다.

6 **서술형**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해 버리는 현상을 뜻하는 사회 심리학 용어이다.

7 **서술형** ‘스나이더와 스완’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상대방의 성격을 판단한 후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고 있음을 밝혀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하고 있다.

8 글쓴이는 글의 끝부분에서 첫인상이 주는 편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9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555개의 단어를 정리한 예’는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다양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성격은 어느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성질의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혈액형 성격학에 영향을 끼친다. 혈액형 성격학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는 것으로, ①은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①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와 상반된 사례이다.

② ①은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③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하고 그 외에 정보는 무시하며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람의 다양한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①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반박하는 사례이다.

- 01 ⑤ 02 ① 03 ② 04 가설 검증 바이어스
05 ④ 06 ⑤ 07 ⑤ 08 ② 0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①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은 글에 담긴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의 객관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설명하는 글의 개념

어떤 사물의 이치나 현상, 지식 등에 대하여 글쓴이가 알고 있는 바를 쉽게 풀이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말한다.

설명하는 글의 특성

객관성	설명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사실성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전달한다.
평이성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하고 쉽게 설명한다.
체계성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명료성	뜻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쓴다.

02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로 형성한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답안·이유 ② (마)에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이 나타나 있다.

③ (라)에서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나)에서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상대의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⑤ (가)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03 글쓴이는 (나)에서 첫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보만으로 상대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잣대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해 버린다.'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글쓴이가 (나), (다)를 바탕으로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임을 말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한 후, 여러 정보 중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

음을 입증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제멋대로 확신해 버리는 현상이다. 이 현상에 의해 뚱뚱한 사람이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여러 행동 중에서 자기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해 버린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타인을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답안·이유 ①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첫인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입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첫인상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스나이더와 스완의 실험을 예로 들어 사람들이 상대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이와 관계된 질문만을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6 실험 대상자 대부분이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판단한 다음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뒷받침하는 질문만 선택한 것은,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판단하고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07 글을 예측하며 읽을 때는 독자의 배경지식, 책의 제목이나 차례, 글쓴이에 대한 정보,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은 그중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사례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측한 것이다.

08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 역시 '가설 검증 바이어스'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A형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성적이고 소심하다는 판단에 맞춰 그 사람의 여러 행동 중 내성적이고 소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완자쌤의 풀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이 형성된 후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 이와 마찬가지로 혈액형 성격학도 혈액형에 따른 성격을 정해 두고, 그와 관련된 정보만을 의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므로 혈액형 성격학도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09 글쓴이는 우리가 형성하는 첫인상이라는 것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성한 것으로 위험하다고 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다)를 통해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 전체에서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비합리적인 인식 행위임을 밝히고,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를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가)에서 사회 심리학자인 스나이더와 스완은 실험을 통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하였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상대의 혈액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축적하여,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 있다고 믿는 것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와 통하는 것이다.

10 (나)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근거로 '혈액형 성격학'을 제시하고 있다.

11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혈액형이라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첫인상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사람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ㄴ. 스나이더와 스완의 실험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한 실험이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555개로 정리한 것은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ㄷ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상반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 글쓴이가 '국제 생체 발자국 네트워크(GFN)'라는 단체를 소개한 이유는 독자들을 환경 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 연구한 자료를 통해 독자들이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글쓴이는 더위를 화두로 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② (가)의 글쓴이 소개에서 글쓴이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③ (나)에서는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⑤ 글쓴이는 더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이 글에서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 자료는 글로 설명한 통계 자료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여, 글의 내용이 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다)에 제시된 그래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제시된 것이 아니다.

14 이 글의 제목은 '더위'를 통해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더위에 관한 과학적 오류와는 거리가 멀다.

(2) 통일성 있는 글쓰기

소단원 평가



120~121쪽

01 ④ **02**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 글의 통일성이 떨어진다. / 글의 내용과 주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 글에 담긴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다. / 글의 주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03 ① **04 ①** **05 ②** **06 ③** **07** 그리고 독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 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01 '정우'의 글쓰기 계획을 살펴보면,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관적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을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인 글이므로 글쓴이의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②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것은 수필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담은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이다.

③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생성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중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만 활용해야 한다.

⑤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02 **서술형** 제시된 글은 한 편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글의 통일성과 관련된 내용을 썼을 경우 답으로 인정한다.

원자샘의 풀이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제시된 글과 같이 통일성이 없는 글은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

03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는 단계는 글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②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만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③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수준에 알맞은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04 (가)의 글쓰기 계획을 볼 때,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소개한다고 하였고, (나)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설명한 자료이다. 자료의 내용을 고려할 때, 독도의 위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나)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개요에서 이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오답인 이유 ① '가운데-1-나. 경제적 가치'는 '가운데-1. 독도의 지리'의 하위 항목으로 어울리지 않으며, '가운데-1. 독도의 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운데-1-가. 독도의 기후'와 함께, '독도의 위치적 특성'이 제시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③ '가운데-2-라.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은 글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임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글의 개요에는 '3. 독도의 가치' 위에 '2. 독도의 역사'가 있다. 이 글은 독도의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의 앞에 독도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가운데-1-나. 경제적 가치'는 '가운데-3. 독도의 가치'의 하위 항목에 어울리는 내용임으로 이동해야 한다.

고쳐쓰기 과정에서 해야 할 일

-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단은 삭제한다.
- 각 문단에서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문장은 삭제한다.
-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동해야 하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글의 통일성을 높이는 방법

-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인지 확인한다.
-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06 (다)는 멸종되었지만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인 강치에 관한 내용으로,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라는 주제와 관련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가) 문단은 길이상으로도 두 개로 나눌 만큼 길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② (나)의 뒷부분에 제시된 예는 독도에 사는 희귀한 생물들을 열거한 것으로, 독도의 환경, 생태학적 가치라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라) 문단은 독도의 위치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첫 문장인 '독도는 위치적으로도 가치가 높다.'에 이와 같은 문단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가)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나)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다.

07 **서술형** (가)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이지만, (가)에 제시된 '그리고 독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는 문장은 독도의 위치적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가)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라)의 [A]로 이동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대단원 평가



130~135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②	08 ④	09 ③	10 기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⑤	12 ③	13 ⑤	14 ③	15 ①
16 '고쳐쓰기' 단계에서 삭제해야 할 문단은 (다)이다. (다)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단이기 때문이다.	17 ①	18 ④	19 ⑤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글쓴이의 특별한 주장이 드러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라)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사례를 (마)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가), (나)에서 첫인상만으로 여러 가지 선입견을 형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2 사람들은 상대의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와 같은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상대의 첫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에 사용하는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② (가)에서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상대의 첫인상을 형성할 뿐 아니라 첫인상만으로 상대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하였다.

03 이 글의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읽으며 ②와 같이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처음-가운데-끝'이라는 구조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①과 같은 예측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라)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설명하며 '아예 무시해 버린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과 같은 예측은 글에 나타난 정보와 읽기 맥락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예측하는 것이다.

④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낱말의 뜻을 예측하는 것이다.

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다.

04 이 글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한 글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

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⑤는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A형인 사람의 여러 행동 중 내성적이고 소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면서 '혈액형 성격학'이 맞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③ (가)에서 뚱뚱한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뚱뚱한 사람의 여러 행동 중에서 자기의 생각에 부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하는 것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가)에서 첫인상만으로 상대의 성격뿐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 현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05 <보기>의 '민호'는 첫인상이 형성된 이후에 마른 친구들은 예민하다는 자신의 가설을 확신하고 있다. '민호'에게는 (다)와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라고 조언할 수 있다.

06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첫인상이 주는 오류와 선입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며 사람의 성격은 여러 측면이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 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것이다.

글을 읽으며 예측할 수 있는 내용

- 이어질 내용
- 글의 구조
- 글의 결말
- 글쓴이의 의도
- 낱말이나 문장의 뜻
-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

참고 자료

07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글쓴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라)에서 더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관심이 적은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며, 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인 '더위'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⑤ (다)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의 조사를 활용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애쓰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08 <보기>는 '지구 생태 용량 과용의 날'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현재처럼 자원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 뒤에는 상황이 이리 한테도, 더위 앞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다)의 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완자뽀의 풀이

글 안에서 문단의 적절한 위치를 찾을 때는 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특히 글의 각 문단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주목해 봐. 그러면 문단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지, 또는 문단의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할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09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때는, 글의 읽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의 서론인 (가)에서 더위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읽기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본문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본론인 (나)와 (다)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다룰 것 같아.'라고 예측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0 **서술형** (라)에서 글쓴이는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 글은 기후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말하려 함을 서술하였다.	☐
글쓴이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

11 제시된 글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제시된 글과 같이 통일성이 없는 글은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각적인 자료는 필요할 때 제시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⑤는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다.

12 '개요'는 생성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구조화한 글의 뼈대로,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

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과정

참고 자료 •

계획하기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글의 종류 등을 정함.
내용 생성하기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중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선정함.
내용 조직하기	생성한 내용을 글의 흐름에 따라 배치함.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 씀.

13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 중 선정된 자료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 즉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글의 목적과 어울리고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또한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흥미로운 자료라 할지라도,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활용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를 우선시하여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고쳐 써야 하는데, 이때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단은 없는지, 각 문단에서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문장은 없는지,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동해야 하는 문장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예상 독자는 ‘고쳐쓰기’ 단계에서가 아니라 ‘계획하기’ 단계에서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15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은 상위 항목인 ‘독도의 역사’에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므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② 이 글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특별히 청소년의 역사식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처음’을 ‘역사식이 없는 청소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로 하여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

③ ‘독도의 지리’ 하위 항목에 ‘독도를 찾아가는 방법’을 넣으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된다.

④ ‘독도의 기후’는 ‘독도의 지리’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독도의 소중함을 알고 가까이 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서술형** 통일성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문단과 문단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는 독도에 살았던 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독도의 가치’라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다)를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삭제해야 할 문단이 (다)임을 서술하였다.	☐
(다) 문단이 주제에서 벗어나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

17 ‘바이어스(bias)’가 ‘편견’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이므로, ①은 이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예측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③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④ 자신이 모르는 낱말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찾으려 읽으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⑤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자신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며 읽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배경지식이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험과 지식을 의미해. 예를 들어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하려면 작품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등의 배경지식을 잘 활용해야 한단다.

18 (가)~(다)의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주제는 ‘외모 지상주의에 담긴 오류’가 아니라 ‘가설 검증 바이어스로 인한 선입견을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자.’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사회심리학 용어이며,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읽을 독자는 일반 대중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이 글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독자에게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현상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계획하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

글의 종류	글을 쓰는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함.
글의 목적	예상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글의 목적을 선택해야 함.
예상 독자	나이, 성별, 직업, 취미, 종교, 관심사, 지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자에게 알맞은 단어, 문장, 표현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함.
글의 주제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것,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바,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함.

19 (라)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 (마)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마)에서 ⑤와 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중간고사 1회



136~141쪽

-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사람(존재), ㉡: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존재) 06 ④
- 07 ⑤ 08 •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 ㉠ • 그 이유: <보기>에서는 책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에서는 '유성'을 '빛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므로 비유 표현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09 ⑤ 10 ④
- 11 ③ 12 ㉠: 책 읽기 경험 나누기 13 ⑤
- 14 (가) 15 ⑤ 16 ⑤ 17 ② 18 ⑤
- 19 ③ 20 ③ 21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글의 종류 22 ③ 23 ① 24 ④ 25 ③

01 (나)의 말하는 이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자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지만, 역경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과 유성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말하는 이는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⑤ (다)에서 '바위'는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하며, '물'은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02 (나)의 '바람'은 고달픈 현실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이고, (다)의 '바람'은 맑기는 하지만 그칠 적이 많아 긍정적인 의미의 '물'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즉 (나)와 (다)의 '바람'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03 (가)의 [A]와 <보기>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A]는 비유 표현이 나타나고, <보기>는 비유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A]와 달리 <보기>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사실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완자쌤의 풀이

비유 표현을 사용하면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할 수 있고, 대상을 구체화하며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어.

04 (가)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빛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밤하늘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보기>는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 생명력이 가득하며 포근하고 따뜻한 봄의 분위기를 참신하게 나타내었다. 즉, (가)와 <보기>는 모두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ㄴ. (가)와 <보기> 모두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말하는 이의 소망이 드러나 있지 않다.

ㄷ.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한 표현은 <보기>에만 나타나고 있다.

ㄹ. (가)와 <보기> 모두 시각적 심상은 나타나지만, 촉각적 심상은 <보기>에만 나타난다.

05 **서술형** '함박눈'과 '진눈깨비'는 개인적 상징에 해당하며,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를, '진눈깨비'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 시는 이러한 두 시어의 대비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시인의 바람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함박눈'의 긍정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진눈깨비'의 부정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06 (나)의 말하는 이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고 당부하며,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07 시인은 6수에서 달을 보며 만물을 다 비추면서도 온 세상 모든 사물을 속속들이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함을 지니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2수에서 구름의 빛깔이 깨끗하여 좋다고 하지만, 검어 지기를 자주 한다고 하였으며 깨끗하고도 그치는 때가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한다고 하였다. 시인은 자주 검어지는 '구름'을 항상 변함이 없는 '물'과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구름'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수에서 바람 소리가 맑게 들려 좋기는 하나, 그칠 때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람'이 소리는 맑은데 불었다 안 불었다 하며 그칠 때가 많음을 나타낸 것이다. '바람'은 시인이 예찬하는 대상인 '물'과 대비되는 소재이므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③, ④ 3수에서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쉽게 지나며 아마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한다고 하였다. 이는 '꽃'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바위'를 예찬하는 것이다.

08 **서술형** <보기>에서는 '책'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에서는 '유성'을 '빛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은유)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공통점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유사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을 ㉡으로 찾아 썼다.	☐
㉠에 비유가 사용되었음을 <보기>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09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읽기 적절한 분량인지, 모둠 구성원의 관심사를 담고 있는지, 모둠에서 정한 분야인지, 모둠 구성원의 읽기 수준에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명성이 높은 저자와 출판사의 책이라도 이 점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그런 책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보기>의 '준서'는 모두 구성원끼리 함께 읽을 책의 분야를 정한 후, 책의 선정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책을 선정할 때에는 직접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인터넷의 서평 등을 참고할 수도 있다. 다만, 집에 있는 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르는 것은 모두 구성원과 함께 읽을 책을 고르는 활동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정우'는 서점에서 책을 찾아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나)의 '준서'는 사서 선생님께 책을 추천받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나)의 '지민'은 블로그에서 찾아 읽은 서평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학교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책이 많으므로 적절한 선정 방법이다.

11 (다)는 책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낱말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찾아본 것이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은 책을 모두 읽은 후에 친구들과 책 읽기 경험을 나누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12 **서술형** (가)~(나)는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다)는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는 과정이다. (가)~(다)와 같이 모두 구성원과 함께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은 후에 '책 읽기 경험 나누기' 활동을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책 읽기와 관련한 경험을 나누는 활동임을 정확하게 썼다.	☐

13 글쓴이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꾸려 하지 않는 이유를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혈액형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다)에 따르면 혈액형이 같은 사람의 성격이 유사할 것이라고 보는 '혈액형 성격학' 역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혈액형 성격학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② (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첫인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마)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마음대로 재단한 것이므로 위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라)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555개의 단어로 정리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26은 (나)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하기 위해 한 실험에서 제시한 질문의 수이다.

④ (라)에서 사람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하였다.

14 **서술형** 첫인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 문단은 (가)이다.

15 사람들이 첫인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이유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이러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오류를 밝히고 있으나, 첫인상을 좋게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16 이 실험의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사람들이 새로 만나는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완자쌤의 풀이

스나이다와 스완은 실험 대상인 대학생들에게 26개의 질문을 통해 상대의 성격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선택하기보다는 상대의 성격을 먼저 판단한 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했다. 26개의 질문을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이러한 현상을 바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해.

17 (마)에서 글쓴이는 첫인상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뿐인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마음대로 형성한 것이기에 위험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모두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이 글의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로 인한 첫인상의 오류와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성격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은 ⑤와 같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9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지만, 수집한 자료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만 취사선택하여야 한다.

20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글쓰기의 단계 중 '내용 조직하기'와 관련된 것이다.

21 **서술형** <보기>에서 '나라'와 '정우'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정한 요소는 글의 목적(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예상 독자(중학생 친구들), 글의 주제(독도의 지리의 역사, 가치), 글의 종류(설명하는 글) 등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해야 할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썼다.	☐



완자샘의 풀이

‘계획하기’는 말 그대로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쓸 준비를 하는 활동을 말해, 글쓰기 과제를 분석하고,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쓴 글을 읽을 독자는 누구인지 등을 생각하는 활동이야. 일반적으로 미숙한 글쓴이는 곧바로 글을 쓰는 경향이 많은데, 능숙한 글쓴이는 계획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 그만큼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

22 <보기>의 개요에는 국립 수산 과학원이나 독도 사진전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식을 안내한 신문 기사를 글에 활용하는 것은 내용상 거리가 멀다.

오답인 이유 ① ‘가운데-1. 독도의 지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② ‘가운데-1-나. 독도의 위치와 구성’, ‘가운데-3-나. 위치적 가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④ ‘가운데-2-가. 조선 시대까지의 역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⑤ ‘가운데-3-가. 환경·생태학적 가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23 <보기>는 글의 주제, 글의 흐름, 문단의 중심 내용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는 글의 통일성을 점검하는 항목이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문단과 문단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글 점검하기

참고 자료

주제의 명료성	글의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는가?
자료의 적절성	다양한 자료에서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글의 참신성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표현이 참신한가?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24 <보기>에 제시된 글은 한 편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즉, 통일성이 부족한 글이다.

25 제시된 글은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고 한 문장은 뒤에 이어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은 모든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독도’이다.

② 독도의 환경과 독도 생태계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장에 독도에는 희귀한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독도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⑤ 하늘, 바다, 땅에 사는 다양한 희귀한 생물들을 열거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간고사 2회



142~147쪽

01 ③	02 ②	03 빛나간 야구공 하나, 예정된 궤도를 벗어난 움직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04 ⑤
05 ①	06 ③	07 ⑤	08 편지, 새살	
09 A: 쉽게 변하지 않음, B: 달	10 ⑤	11 ①		
12 ④	13 ⑤	14 ⑤	15 ③	16 ②
17 ⑤	18 ③	19 ③	20 A: 내용 조직하기	
21 ④	22 ⑤	23 A: 독도의 가치	24 ④	
25 ④				

01 (가), (나)의 갈래는 시이다. 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말하는 이이며, 서술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술자에 따라 작품의 시점이 결정되는 문학의 갈래는 소설이다.

오답인 이유 ① 시는 운율을 가진 문학이다.

②, ④ 시는 일상 언어와 달리 다양한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⑤ 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나타낸 문학이다.

02 (가)에는 시각적 심상(‘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과 청각적 심상(‘아득히 들리는 함성’, ‘빈 우레 소리’)이, (나)에는 시각적 심상(‘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 눈’), 후각적 심상(‘고운 봄의 향기’), 촉각적 심상(‘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이 두루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심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는 봄이라는 계절이 드러나지만, (가)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 (나) 모두 뚜렷하게 대비되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 (나) 모두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없다.

⑤ (가), (나) 모두 말하는 이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서술형** (가)는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야구공이 유리창을 깨고 지구로 떨어진 것으로 표현하며, ‘유성’을 ‘빛나간 야구공 하나’에 비유하고 있다. 이때 ‘유성’과 ‘빛나간 야구공 하나’는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유성’을 비유한 시어를 ‘빛나간 야구공 하나’로 바르게 찾아 썼다.	☐
두 대상의 공통점으로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내용을 썼다.	☐

04 (나)는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 봄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햇빛이 반짝이는 봄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인 이유** ① ‘포근한 봄의 줄음’에 봄의 포근한 모습이 드러난다.
 ② ‘푸른 봄의 생기’에 봄의 푸르른 모습이 드러난다.
 ③ ‘고운 봄의 향기’에 봄의 향기로운 모습이 드러난다.
 ④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다’에 봄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드러난다.



완자쌤의 풀이

이 시는 봄의 모습을 고양이에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이 시를 읽으면 고운 봄, 생명력 넘치는 봄, 포근한 봄, 푸른 봄 등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05 ㉠은 반짝거리는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의 모습을 ‘운동장’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즉 ‘밤하늘’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운동장의 모습을 밤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06 (가)와 (나)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다. ‘같이’, ‘처럼’, ‘듯이’ 등의 표현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비유’의 방법 중 하나인 ‘직유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7 (가)는 ‘함박눈’과 ‘진눈깨비’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인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 ‘진눈깨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고 외면하는 존재를 뜻하며, 반대로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한편 (나)에서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물, 바위, 작은 것(달)’을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대립되는 시어(‘구름, 바람, 꽃, 풀’ 등)와 비교하여 예찬하고 있다.

08 **서술형** (가)는 ‘진눈깨비’가 되지 말자는 당부(1~3행),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는 당부(4~7행), ‘잠 못 든 이’의 ‘편지’와 ‘새살’이 되고 싶은 마음(8~12행)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A]에서 말하는 이는 ‘편지’와 ‘새살’이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잠 못 든 이’,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을 위로하고자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빈칸에 들어갈 2가지 시어를 모두 찾아 썼다.	☐

09 **서술형** (나)의 말하는 이는 자연물의 특질을 들어 사람의 덕목으로 표현하고 이를 예찬하고 있다. 제2수에서는 깨끗하고 멈추지 않는 ‘물’을, 제3수에서는 변하지 않는 ‘바위’를, 제6수에서는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도 과묵한 ‘달’을 예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특질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에 들어갈 자연물을 바르게 썼다.	☐

10 (가)의 말하는 이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자는 바람을 ‘함박눈’과 ‘진눈깨비’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진눈깨비’는 비와 섞여 내리는 눈을 뜻하는데,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진눈깨비’가 텅 빈 공중에서 머뭇거리며 흩어진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이 시에서 ‘진눈깨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고 외면하는 존재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함박눈’은 ‘따뜻한 함박눈’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에게 ‘편지’가 되고 ‘새살’이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1 책의 전체 쪽수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1단계-책 선정하기’에서 선정한 책을 읽기 전에 수행하는 활동이다. ‘3단계-책 읽기 경험 나누기’에서는 책을 읽은 후 책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둠 구성원과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12 ‘준서’는 사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내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책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가)에서 모둠 구성원들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책은 모둠에서 읽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3 글쓴이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출판하는지 알게 되는 것은 한 글쓴이가 쓴 여러 권의 책을 읽어 보거나, 글쓴이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활동을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독서 일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14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의 글쓴이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달한 정보를 근거로 들어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알아 가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사회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가)에서 이러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사람들이 첫인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선입견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이유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제시하고, 이것이 위험함을 말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예로 동등한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며, 그 사람의 행동 중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하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사회 심리학자인 스나이더와 스완의 연구를 통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증명하였다고 했다.

15 사람들은 첫인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나)에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는 실험을 제시하는데, 실험 결과,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는 먼저 사람의 성격을 판단한 다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만 선택하였다. 따라서 첫인상을 형성하기 전에 상대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16 글을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 가능한 요소에는 독자의 배경지식,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 글쓰기와 관련된 정보, 차례에 드러난 정보, 책의 제목이나 표지에 드러난 정보 등이 있다. 독자의 독서 습관은 이와 거리가 멀다.

17 <보기>의 '정우'는 처음 만난 친구의 마른 외모만을 보고 예민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 많은 행동 중, 식사를 할 때 이것저것 가리는 모습만 보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마)에서 자신의 잣대로 상대의 성격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는 편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는 이 글을 읽고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완자쌤의 풀이

이 글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도 혹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될 거야.

18 (가)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현상임을 제시하였고, (나)에서 스나이더와 스완은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의 맥락으로 보아 ㉢의 뒤에는 일반적인 것과 반대되는, 즉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관계가 첫인상에서 시작된다는 표현을 통해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아예 무시해 버린다.'에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입각한 사고방식이 사람의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내포된 것이다.

④ 첫인상 외에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이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⑤ ㉢을 통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버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9 통일성 있는 글이란 글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을 말한다. 독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독자가 글에 집중하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독자의 호응만을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글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자료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 통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② 내용 수집하기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면, 글이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꾸러지게 된다.

④ 표현하기 과정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한다면 글 전반의 내용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⑤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고려하며 개요를 짜면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20 **서술형** 통일성 있게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은 글쓰기 상황을 설정하는 '계획하기',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내용 생성하기', 생성한 내용을 체계적인 구조로 만드는 '내용 조직하기', 글쓰기 계획과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표현하기', 통일성에 어긋난 부분을 삭제하거나 글의 흐름에 맞게 문장을 이동하는 '고쳐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1 <보기>의 글은 하나의 주제가 없이 다양한 내용을 무작위로 구성한 통일성이 없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여 통일성 있는 글로 고쳐 써야 한다.

22 (가)에서는 독도 주변의 바다에 겨울과 봄에는 명태 어장이, 여름과 가을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나)에서는 독도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바다에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함을 설명한 다큐멘터리는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자료이다.

23 **서술형** (가)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나)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항목으로는 '독도의 가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4 (가)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에 어긋난다. (나)는 독도에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은 독도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과 ㉣은 삭제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 어류의 먹이가 풍부하다는 내용의 앞 문장에 이어 많은 어류가 사철 모인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앞 문장에 제시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독도에 다양한 식물이 사는 것의 예를 들으로써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상투적인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글을 참신하게 만들어 독자의 집중력을 높여 줄 수 있는 고쳐쓰기 방법이지만, 표현을 참신하게 바꾸는 것이 글을 통일성 있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통일성 있는 글을 쓰려면 글의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없는 문단은 삭제해야 한다.

② 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면 글의 내용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③ 글의 주제와 관련은 있지만,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있으면 위치를 바꿔 주어야 한다.

⑤ 접속어와 지시어를 통해 내용끼리의 관련성을 뚜렷하게 보여 주다면 내용이 긴밀해지므로 통일성이 생긴다.

3 재미있는 낱말 탐험

(1) 품사의 종류와 특성

소단원 평가

172~177쪽

-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 형용사 ㉡: 동사, ㉢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08 ④ 09 ③ 10 ② 11 ④ 12 ②
 13 ① 14 ⑤ 15 ③ 16 다른 말을 꾸며 준다.
 17 ⑤ 18 ③ 19 ③ 20 ⑤ 21 ⑤
 22 ④ 23 ④ 24 ④ 25 ② 26 ②
 27 ⑤ 28 관형사인 '모든'이 뒤의 말을 꾸며 주어 선생님 이 놀란 이유를 자세히 알려 주기 때문이다. 29 ③
 30 ② 31 ② 32 ⑤ 33 ④ 34 ①
 35 ㉠에서 부른 사람은 소리이고, ㉢에서 부른 사람은 지혜이다. 조사인 '가'와 '를'의 위치가 바뀔 때 따라 문장의 뜻이 달라졌다.
 36 ⑤ 37 ㉠의 '그'는 '대명사'이고, ㉢의 '그'는 '관형사'이다. ㉠의 '그'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고, ㉢의 '그'는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38 ④ 39 ④ 40 ③
 41 형태, 기능, 의미

01 용언은 주로 주체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문장에서 쓰일 때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므로 형태가 변한다.

02 '설악산'은 명사로, 문장에서 쓰이는 위치에 관계없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나머지는 위치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답안·이유 ① 기쁘, 기쁘게, ② 달리고, 달리니, ③ 예쁜, 예뻐서, ⑤ 흔들고, 흔들니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할 수 있다.

03 '정말'은 뒤에 오는 형용사 '아름다웠다'를 꾸며 줄 수 있는 부사로, 부사인 '매우'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답안·이유 ①, ② '꽃, 구름'은 명사이고, ④ '예쁘다'는 형용사, ⑤ '달리다'는 동사이다.

04 '둘'과 '하나'는 각각 두 명의 사람과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둘'과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05 '걱정'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다.

▶답안·이유 ①, ②, ④, ⑤ '손, 가방, 사탕, 우산'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다.

06 '그'와 '저것'은 무엇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그'는 사람이고, '저것'은 사물을 대신하는 말이다.

07 ▶서술형 ㉠은 형용사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는 동사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과 ㉢의 품사가 형용사와 동사임을 서술하였다.	☐
㉠과 ㉢의 의미 차이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

08 '모든'은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인 '사람'을 수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사는 ④ '무슨'이다.

▶답안·이유 ①은 대명사, ②는 명사, ③은 형용사, ⑤는 동사이다.

09 '심으셨다(심다)'는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라는 뜻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답안·이유 ①, ②, ④, ⑤ '즐겁다, 가늘다, 얇다, 새하얗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완자샘의 풀이

현재형 어미 '-는다/-니다', 명령형 어미 '-아/-어라', 청유형 어미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동사'이고, 어색하면 '형용사'야.

10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아주, 매우' 등의 부사로,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거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답안·이유 ①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⑤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11 <보기>와 같이 '-는다/-니다', '-어라/-아라', '-자'를 붙여 활용했을 때, '빠르다'는 '빠르다, 빠르어라, 빠르자'와 같이 어색한 표현이 되므로 활용이 자연스럽지 않다.

▶답안·이유 ① 앓다: 앓는다, 앓아라, 앓자 → 자연스러움

② 웃다: 웃는다, 웃어라, 웃자 → 자연스러움

③ 잡다: 잡는다, 잡아라, 잡자 → 자연스러움

⑤ 치우다: 치운다, 치워라, 치우자 → 자연스러움

12 ②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조사'이다. 나머지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낱말들이다.

▶답안·이유 ① '나'는 대명사이고, ③의 '기차'와 ④의 '여행'은 명사이며, ⑤의 '가다'는 동사로 모두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다.

13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관형사와 부사 즉 '수식언'이다. ①에는 명사와 조사, 동사가 쓰였으며, 수식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답안·이유 ②에서는 '두', ③에서는 '옛', ④에서는 '어떤', ⑤에서는 '엇금엇금'이 문장 안에서 각각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고 있다.

14 밑줄 친 낱말은 모두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분류,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의 '여보세요'는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므로 감탄사이다.

오답인 이유 ①은 대답을 나타내고, ②, ③, ④는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15 제시된 문장에서는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가 사용되었으며 용언을 수식하는 품사인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친구, 사진, 과거'와 같은 명사 세 개가 사용되었다.

② '친구는'에서 '는', '사진을'에서 '을', '과거를'에서 '를'이라는 조사가 사용되었다.

④, ⑤ '보며'와 '떠올렸다'는 활용이 가능한 용언에 해당하며, 사물이 나 상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16 **서술형** '어떤'은 관형사, '가장'은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수식언에 속한다.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17 ⑤에서 '예쁘다, 검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로 형용사에 해당하지만, '노래하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로 동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품사의 낱말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산, 들, 강'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② '그것, 여기, 너'는 사물, 사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③ '먹다, 가다, 놀다'는 모두 동사이다.

④ '은/는, 이/가, 을/를'은 모두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18 문장 안에서 낱말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명령언이라는 품사는 없다.

19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주로 문장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③의 '먹었어'는 동사로,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은 대명사, ②는 수사, ④, ⑤는 명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20 '우정'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우정'을 제외한 '비, 집, 우산, 주머니'는 구체적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다.

21 ㉠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앞에 제시된 사인을 가리키며, ㉡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바로 앞 문장에 제시된 굴뚝을 가리킨다. ㉢은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앞에 제시된 연못가를 가리킨다.



완자쌤의 풀이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품사야. '그'가 사람을, '저것'이 사물을, '여기'가 장소를 가리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22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이 대화에서 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둘, 하나'와 순서를 나타내는 '첫째, 둘째'로 모두 4개이다.

23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이르는 말로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조사이다.

②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을 꾸미는 것은 수식언인데, 이중 주로 체언을 꾸미는 것은 관형어이다.

③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는 것은 체언으로, 이 경우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

⑤ 문장 안에서 주로 다른 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관계언으로 조사가 이에 속한다.

24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은 가변어로, 가변어에는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과 조사 '이다'가 있다. ④의 '파랗다, 자다, 바꾸다'는 모두 용언이므로 형태가 변하는 낱말들이다.

오답인 이유 ① '정말'은 명사, 부사, 감탄사로 쓰이며, '사랑'과 '학교'는 명사로 쓰인다.

② '아버지'는 명사, '크다'는 형용사, 동사로 쓰이며, '작다'는 형용사로 쓰인다.

③ '전부'와 '매일'은 명사, 부사로, '아름답다'는 형용사로 쓰인다.

⑤ '어머니'는 감탄사로, '이것'은 대명사로, '인사하다'는 동사로 쓰인다.

참고 자료

서술격 조사 '이다'

서술격 조사는 조사에 붙는 체언이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서술어가 되게 만드는 조사로, '이다'가 있다. 서술격 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다, 이니, 이면' 등으로 형태가 변한다.

25 '깨끗하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깨끗해라.'라는 문장이 어색한 것처럼, 형용사는 '-는다/-니다', '-아라/-어라', '-자'를 붙여 현재 진행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동사는 활용이 자유롭다.

오답인 이유 ①, ③, ④, ⑤ '걷다, 마시다, 먹다, 읽다'는 모두 동사로, '-자'(걸자, 마시자, 먹자, 읽자), '-는다/-니다'(걷는다, 마신다, 먹는다, 읽는다), '-아라/-어라'(걸어라, 마셔라, 먹어라, 읽어라)와 결합해 활용해도 어색하지 않다.

26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므로,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것은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오답인 이유 ①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③, ④, ⑤ 동사와 형용사는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활용(活用)'이 가능하다. 다만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현재 시제 표현, 명령형 표현, 청유형 표현으로 활용할 수 없다.

27 ①~④의 '잠깐, 느릿느릿, 분명히, 가장'은 용언이나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부사이고, ⑤의 '새'는 뒤에 오는 '웃'(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우리말은 꾸며 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이지. 그러니까 뒤에 오는 낱말의 품사를 살펴보면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어.

28 **서술형** ㉔와 ㉕를 비교하면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㉔에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㉔에서는 '모든'이라는 관형사를 통해 선생님이 놀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와 달리 ㉕에는 '모든'이 사용되었음을 제시하였다.	☐
관형사가 뒤의 내용을 꾸며 주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

29 빈칸에는 서술어인 '좋아한다'를 꾸며 줄 수 있는 말, 즉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부사는 문장 전체 또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천천히', '빨리'는 부사이다.

30 ㉑에서 조사 '도'는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는 '대조'가 아니다. 만두와 떡볶이를 모두 먹겠다는 뜻이므로 '역시, 또한'의 뜻을 더해 준다.

오답인 이유 ① ㉑과 ㉒에는 '먹다'라는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다.
 ③ ㉒에서 '만'은 '한정'의 의미로 만두, 떡볶이 중에서 오로지 떡볶이만 먹겠다는 뜻이다.
 ④ ㉑의 '도'와 ㉒의 '만'은 체언 '떡볶이' 뒤에 붙어서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며, 홀로 쓰일 수 없는 조사이다.
 ⑤ '도'와 '만'으로 인해 ㉑과 ㉒의 뜻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1 ㉓와 ㉔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㉓ '응'은 '혜빈'이 부른 말에 '도영'이 대답한 것이고, ㉔ '아이고'는 '도영'의 느낌을 나타낸 것이다.

32 ㉕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로,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부르며, 생략해도 문장의 뜻에 큰 변화는 없다. 낱말과 낱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관계언인 '조사'이다.

33 제시된 문장에서 밑줄 친 낱말인 '과'와 '를'은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로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빵, 우유'와 같은 명사이다.
 ②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은 용언(동사, 형용사)이다.
 ③ 조사는 주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쓰인다.
 ⑤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것은 용언(동사, 형용사)으로, 이 문장에서는 동사인 '먹었다'가 용언이다.

34 ①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체언에 속한다. 이와 달리 ②~⑤는 모두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35 **서술형** 조사는 낱말과 낱말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사가 바뀌면 문장의 전체 의미가 변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가'는 주어의 기능을, '를'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두 문장의 차이를 서술하였다.	☐
두 문장의 뜻이 달라지게 만든 낱말의 품사를 밝혀 서술하였다.	☐

36 제시된 문장에는 감탄사 '야', 명사 '연필, 자루', 관형사 '한', 조사 '만', 동사 '빌려줘'가 쓰였다. 즉 낱말들의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나눌 때, 총 다섯 개의 품사가 사용되었다.

37 **서술형** 동일한 낱말도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다름을 파악할 수 있다. ㉔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하고, ㉕는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와 ㉕의 밑줄 친 낱말의 품사를 각각 밝혀 서술하였다.	☐
㉔와 ㉕의 밑줄 친 낱말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밝혀 서술하였다.	☐

38 <보기>에서 ㉑의 '두'는 뒤의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㉒의 '결혼했다'는 기본형이 '결혼하다'로 동사이다. 제시된 낱말 중 '셋'은 수사, '세'와 '새'는 관형사, '파랗다'는 형용사, '달리다'는 동사이다.

39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㉑~㉔ 중 관형사는 '새들'을 꾸미고 있는 ㉑의 '저'와 '마리'를 꾸미고 있는 ㉔ '세'이다.

오답인 이유 ㉑: '우아'는 감탄사이다.
 ㉓: '같이'는 부사이다.
 ㉔: '날아가네'는 기본형이 '날아가다'로 동사이다.

40 문장 안에서 다른 낱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이다.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으며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민다.

41 **서술형** 낱말을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형태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소단원 평가

194~197쪽

-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고유어는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채어(색깔을 표현하는 말)가 발달하였다. 07 ⑤ 08 ③ 09 ③
 10 ④ 11 같은 대상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 있다. 12 ⑤ 13 ⑤ 14 ⑤ 15 ③
 16 ⑤ 17 ⑤ 18 ⑤ 19 ⑤ 20 ⑤
 21 ② 22 ⑤

01 ‘날말’은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덩어리이다. ‘어휘’는 낱말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으로 낱말이 개별적인 단위라면 어휘는 낱말들이 모인 체계적인 집합을 가리킨다. 낱말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02 어휘는 ‘낱말의 기원(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은 ‘고유어’이고,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은 ‘한자어’이며,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은 ‘외래어’이다.

03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꿈이 해당된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희망(希望), ㉢무대(舞臺)가 해당한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롤 모델(role model)과 ㉤패션(fashion)이 있다.

04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뜻이 분화된 말은 한자어로, 한자어로만 묶인 것은 ‘연필(鉛筆), 자유(自由), 학교(學校)’이다.

오답인 이유 ㉠은 모두 고유어이다.

③ ‘버스(bus)’, ‘커피(coffee)’, ‘피자(pizza)’는 모두 외래어이다.

④ ‘눈썹’은 고유어이고, ‘책상(冊床)’과 ‘교실(教室)’은 한자어이다.

⑤ ‘학생(學生)’과 ‘언어(言語)’는 한자어이고, ‘모델(model)’은 외래어이다.

05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은 외래어로, 밑줄 친 낱말 중 외래어는 ‘피아노’이다.

오답인 이유 ① ‘친구(親舊)’, ② ‘고생(苦生)’은 한자어이고, ③ ‘무지개’, ④ ‘사람’은 고유어이다.

06 **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말들은 ‘붉다’와 비슷한 뜻을 지닌 낱말들이다. 이를 통해 고유어에는 색깔의 정도나 느낌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색채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고유어’, ‘색채어 발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완자쌤의 풀이

‘붉다’와 비슷한 뜻을 지닌 말에는 <보기> 외에도 ‘빨갓다, 벌겋다, 발그레하다’ 등이 있어, 미세한 색감 차이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에서, 고유어는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지.

07 ㉠인터뷰(interview)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의미하는 외래어이며 ㉡정보(情報)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이야기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의미하는 고유어이다.

08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의미하는 ‘의향(意向)’, 좋게 여기는 감정을 의미하는 ‘호감(好感)’,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심정(心情)’을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유어는 ‘마음’이다.

09 <보기>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보여 주는 예이다. 한자어는 구체적이고 분화된 뜻을 지니고 있으며, 고유어의 뜻을 분명히 하여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고유어가 여러 뜻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개의 한자어와 대응하기도 한다. 고유어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잘 담겨 있는 것은 맞지만 <보기>의 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10 밑줄 친 텔레비전(television), 프로그램(program), 패션 모델(fashion model)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고유어를 대체하며,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을 오염하므로 되도록 고유어인 ‘순화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11 **서술형** <보기>를 통해 같은 대상인 ‘나무’를 서울과 제주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지역에서 다르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부를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
‘~라도 ~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 있다.’의 형태로 서술하였다.	☐

12 <보기>는 표준어 ‘감자, 매우, 조금, 부추’에 해당하는 지역 방언의 예이다. 지역 방언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13 이 글은 지역 방언을 살려 쓴 전성태의 「소를 줍다」라는 소설의 일부이다.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 등을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4 사회 방언은 세대, 직업, 성별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형성하고 우리말 어휘를 다양하게 한다. 그러나 사회 방언을 지나치게 사용한다고 하여 우리말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15 ‘엄마’가 ‘문화 상품권’이라고 말한 것을 ‘나래’는 ‘문상’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를 통해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문상’과 같은 준말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16 밑줄 친 어휘는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17 밑줄 친 어휘는 ‘전문어’이고, 〈보기〉의 어휘는 젊은 세대들끼리 사용하는 준말로서 ‘은어’이다. ‘전문어’와 ‘은어’의 공통점은 그 어휘를 사용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답인 이유 ①은 고유어, ②는 전문어, ③은 지역 방언, ④는 외래어에 대한 설명이다.

18 ‘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로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다. 〈보기〉는 심마니들의 은어인데 ‘무림’은 ‘밥’으로 ‘데팡’은 ‘안개’로 ‘도자’는 ‘칼’로 일반적인 말과 대응시켜 풀어 쓸 수 있다.

19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로 ‘비속어’ 또는 ‘비어’라고도 부른다.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대화할 때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사용되지만 말과 사용되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또한 말 자체에 공격성이 강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언어 습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미 널리 쓰이는 외래어라도 우리말답게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1 ‘라이벌’은 ‘맞수’로 순화시킬 수 있다. ‘천적(天敵)’은 먹이 사슬에서, 잡아먹히는 생물에 상대하여 잡아먹는 생물을 이르는 말이다.

22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까닭은 손녀가 자기 또래 사이에서 쓰는 줄인 말을 사용하여 할아버지가 손녀의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단원 평가



206~211쪽

- 01** ⑤ **02** ‘이것’은 대명사, ‘나무’는 명사, ‘둘’은 수사이다.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7** ①
08 ⑤ **09** ① **10** ④ **11** ① **12** ④
13 ③ **14** ④ **15** ① **16** ④ **17** ㉞는 관
형사, ㉞는 부사이며 둘 다 공통적으로 다른 말을 꾸민다.
18 ② **19** ① **20** ① **21** ③ **22** ⑤
23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쌀과 관련된 말이 발달했
다. **24** ① **25** ㉞는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작
품이 배경으로 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아내서 작품의 분위
기를 더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26** ③ **27** ②
28 ⑤ **29** ① **30** ③ **31** ② **32** ④
33 ③ **34** ‘형태’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불변어)
과 변하는 낱말(가변어)로 나누었다. 또, ‘기능’에 따라 체언과 용
언으로 나누었다.

01 낱말을 품사로 구분하는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로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화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낱말들의 공통된 의미는 무엇인가에 따라 나눈다. 품사는 기준에 따라 묶어 놓은 낱말의 무리를 뜻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2 **서술형** 밑줄 친 낱말들은 모두 체언으로, 의미에 따른 품사 구분에 따르면 ‘이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나무’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대명사, 명사, 수사’라는 3가지 품사를 모두 바르게 밝혀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3 ‘심으셨다’는 ‘심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에 높임을 나타내는 ‘-으시-’와 과거 형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형태이다.

04 ‘그’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주로 남자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앞에 나온 ‘소년’을 가리킨다. ‘저것’은 사물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앞에 나온 ‘밥’을 가리킨다.

05 ‘용언’은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수식언’으로,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06 제시된 문장의 빈칸에는 서술하는 기능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 ‘여행을’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곳에는 ‘다녀오다, 가다, 떠나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완자쌤의 풀이

서술어는 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이다. 주로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가게 마련이고, 체언에 조사 '이다'를 붙여서 넣기도 해.

07 '너'와 '나'는 대명사, '둘'은 수사이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는 품사는 체언이다. 체언은 홀로 쓰이거나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으며, 문장 안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고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08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데 '오냐'와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부른다. 감탄사를 사용하면 상황을 좀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09 '형'은 명사, '가'는 조사, '가장'은 부사, '빠르다'는 형용사이다. '가장'은 뒤에 오는 형용사 '빠르다'를 꾸며 준다.



완자쌤의 풀이

'형의 자동차가 가장 빠르다.'라는 문장의 품사는 '명사(형)+조사(의)∨명사(자동차)+조사(가)∨부사(가장)∨형용사(빠르다)'로 분석할 수 있어. 이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명사에 붙어 나타나는 '의, 가' 등은 조사야.

10 ㉠~㉥은 모두 감탄사로, ㉠은 대답, ㉡, ㉤은 느낌을 나타낸다.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11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에서 명사는 '그릇, 밀가루, 버터, 우유'이다. 이 중 '우선'은 '어떤 일에 앞서서'란 뜻을 가진 낱말로 품사는 부사이다.

12 '하나'는 뒤에 조사 '가'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체언에 해당하므로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둘째'는 수사와 모양은 같지만 명사 '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⑤ ㉢의 '하나'는 수사이지만 ㉤은 관형사이다.

② 수사는 체언에 포함되지만 관형사는 수식언에 포함된다.

③ '하나'와 '둘째'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 있다.

13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낱말의 품사는 '조사'이다. 이 문장에서 조사는 '는, 와, 을'의 3개이며 '나'는 대명사, '국어'와 '수학'은 명사, '좋아한다'는 동사이다.

14 '깨끗하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활용에 제약이 있어서 <보기>의 '나타나다'처럼 '깨끗한다, 깨끗해라, 깨끗하자'와 같이 현재 시제나 명령,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15 ㉠~㉥은 사람,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은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연못가'를 가리킨다.

오답인 이유 ② ㉡은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금도끼'를 가리킨다.

③ ㉢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산신령'을 가리킨다.

④ ㉣은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은도끼'를 가리킨다.

⑤ ㉤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나무꾼'을 가리킨다.

16 ㉠의 '물었어(묻다)'는 동사, ㉢의 '튼튼합니다(튼튼하다)'는 형용사로 용언에 속하며, 용언은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의 기본형은 '묻다'이다.

② ㉡은 동사이므로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

③ ㉢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⑤ ㉤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7 **서술형** ㉢은 뒤에 오는 체언(도끼)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은 뒤에 오는 용언(기뻐하며)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따라서 둘 다 다른 말을 꾸며 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평가 기준	확인 ☒
'관형사, 부사'라는 품사를 밝혀 서술하였다.	☐
다른 말을 꾸민다는 공통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18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제시된 문장은 '귀여운(형용사)'+'아기(명사)'+'가(조사)'+'고요히(부사)'+'잠든(동사)'+'모습(명사)'+'을(조사)'+'보니(동사)'+'정말(부사)'+'사랑스럽다(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수식언은 부사 '고요히'와 '정말'이며, 형용사는 수식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보기>의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부사이다. ㉠의 '너무' 역시 뒤에 오는 '피곤해요'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인 이유 ②는 감탄사, ③은 동사, ④는 명사, ⑤는 명사이다.

20 <보기>의 밑줄 친 말은 조사로, 조사는 '-이다'를 제외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홀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체언에 붙어서 쓰인다. 또한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며, 뜻을 더해 주기도 한다. '누구' 또는 '무엇'을 꾸며 주는 말은 관형사이다.

21 낱말들의 집합인 '어휘'는 '말의 뿌리(어중)'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낱말이 개별적인 단위라면, 어휘는 낱말들이 모인 총체를 가리킨다.

22 어휘는 어중(낱말의 기원, 낱말의 뿌리)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다. '엄마, 나비, 물'은 고유어이고, '가족(家族), 책(冊)'은 한자어, '컴퓨터(computer)'는 외래어이다.

23 **서술형** <보기>는 우리말은 '벼, 쌀, 밥'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말이 영어에서는 'rice' 하나로 표현됨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고 쌀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쌀과 관련된 말이 발달했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농경 사회'나 '쌀이 주식'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내용을 서술하였다.	☐
'~때문에'라는 말을 포함하여 내용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4 '생각'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로 '고유어'이다. '생각'은 '고려(考慮), 고민(苦悶), 추측(推測)' 등의 한자어로 바꿔 쓸 수 있어 하나의 고유어가 문장의 내용에 따라 여러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고려(考慮)'는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고민(苦悶)'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것을 말해. '추측(推測)'은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이처럼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뜻을 가지고 있어.

25 **서술형** ㉔에는 지역 방언이 쓰였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아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에 지역 방언이 쓰였음을 언급하여 서술하였다.	☐
문학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작품의 분위기와 연관 지어 바르게 서술하였다.	☐

26 어휘의 유형 중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은 '고유어'로, '꿈, 그림, 잠자리'는 이에 해당된다.

오답인 이유 ① '형(兄)'은 한자어이고, '언니, 동생'은 고유어이다.

② '국어(國語), 수학(數學), 과학(科學)'은 모두 한자어이다.

④ '꿀'은 고유어, '화가(畫家)'는 한자어, '인터넷(internet)'은 외래어이다.

⑤ '나라'는 고유어, '키보드(keyboard), 바이올린(violin)'은 외래어이다.

27 '사회 방언'은 사회적 요인(성별, 세대,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다. 같은 집단 안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형성한다.

오답인 이유 ① 특정 지역 사회의 정서와 풍습이 잘 드러나는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인 '지역 방언'이다.

③ 사회 방언 중에는 표준어가 아닌 것도 있지만 같은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④ 사회 방언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사회 방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세대, 직업'이다.

28 ㉑과 ㉒은 모두 사회 방언이다. 그중에서도 ㉑은 '은어'이고, ㉒은 '전문어'이다. ㉑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이므로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구성원 사이에는 친밀감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오해를 사기도 한다. ㉒은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는 말로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다. 외부로 알려졌을 때 새로운 말로 변경되는 것은 ㉑인 은어의 특성이다.

29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대화할 때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사용되는 하나,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30 밑줄 친 낱말들은 청소년들이 만들어서 또래끼리만 알고 사용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은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은 '속어'이다.

② 되도록 고유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대상은 '외래어'이다.

④ 전문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전문어'이다.

⑤ 제시된 낱말에서는 성별에 따른 어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31 이 글은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없는 말을 대체하여 우리말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을 흐드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32 <보기>의 글쓴이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홈페이지(homepage)'와 '다운로드(download)'라는 외래어를 각각 '누리집'과 '내려받기'라는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는 '은지'가 글쓴이의 생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우유' 대신 '밀크(milk)'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치마' 대신 '스커트(skirt)'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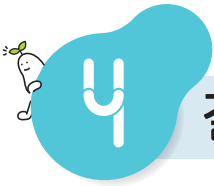
③ '부정 행위' 대신 '커닝(cunning)'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본보기상' 대신 '롤 모델(role model)'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33 '둘, 넷, 여섯'의 품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이 말들의 뿌리를 고려해 어휘의 체계를 분류해 보면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고유어'에 해당한다.

34 **서술형** 분류된 낱말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볼 수도 있고 체언과 용언으로 볼 수도 있다. 불변어와 가변어를 나누는 기준은 '형태'이고, 체언과 용언을 나누는 기준은 '기능'이다. 한편 '의사, 우리, 하나'는 각각 명사, 대명사, 수사로 이 셋이 하나로 묶여 있으므로 낱말의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서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형태'에 따라 낱말들을 분류하였음을 바르게 밝혀 서술하였다.	☐
'기능'에 따라 낱말들을 분류하였음을 바르게 밝혀 서술하였다.	☐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1) 갈등하는 삶

확인 문제

● 219~239쪽

1 219쪽	1 ②	2 ③	3 ①
2 221쪽	4 ④	5 ②	6 ②
3 223쪽	7 ②	8 ③	9 ①
4 225쪽	10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11 ④	12 ②
5 227쪽	13 ⑤	14 ④	15 ⑤
6 229쪽	16 ②	17 ②	18 '수남'이 끝까지 버티고 서서 물건 값을 받아 냈다.
7 231쪽	19 ⑤	20 ②	
8 233쪽	21 ⑤	22 ①	
9 235쪽	23 ⑤	24 ②	25 누런 똥빛
10 237쪽	26 ②	27 ④	
11 239쪽	28 ②	29 ⑤	30 ① 31 ②

1 이 글은 소설의 구성 단계상 '발단' 부분으로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주인공 '수남'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위기, ③, ⑤ 결말, ④ 전개의 특징에 해당한다.

2 단골손님들이 '수남'에게 알밤을 먹이긴 하지만 이는 '수남'을 귀여워하는 방식일 뿐이지 '수남'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다.

3 '수남'이 목소리 때문에 '주인 영감'으로 오해를 받을 때 볼까지 붙어지며 당황해하는 모습에서 순진한 성격을, 전화통에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 없는데도 알밤을 맞을까 움츠러드는 모습에서 소심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등장인물의 성격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나 그 인물의 말과 행동, 겉모습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4 '인색하다'는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다.'라는 뜻으로 '주인 영감'과 관련된 성격이며, '수남'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인 이유 ①, ⑤ 자신을 이용하는 '주인 영감'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것에 감사해하는 모습에서 '수남'의 순진하고 어수룩한 성격이 드러난다.

②, ③ 점원 세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해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바쁘게 일을 하는 모습에서 '수남'의 성실하고 충직한 성격이 드러난다.

5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수남'을 잘 챙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남'이 언제 시험을 보든지도 모르고 여러 명이 해야 할 일을 '수남'에게만 맡기며 '수남'을 혹사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 영감'이 점원을 더 쓰지 않는 실제 이유는 '수남'을 위해서가 아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수남'은 서울에 와서 어엿한 가게의 점원이 된 것만도 눈부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또래의 고등학생만 보면 가슴이 뛰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수남'은 이러한 자신의 비밀을 '주인 영감'이 알아주는 것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다.

7 '수남'은 야학이라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 영감'은 이러한 '수남'의 마음을 눈치채고, '수남'은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에 '수남'은 '주인 영감'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8 ①은 동네에서 '수남'의 부지런함에 대한 평판이 자자함을 말하고 있다. '수남'은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부지런히 일하며, 밤에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나 '수남'은 주간지 같은 데 한눈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

9 '아직은 육친애에 철모르고 푸근히 감싸여야 할 나이다.'에는 아직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나이의 '수남'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과 동정, 애정 어린 시선이 드러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예찬'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태도, ③ '중립'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태도, ④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 ⑤ '풍자'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태도로, ㉠에 드러난 서술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10 **서술형** 이 글에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며, 이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바람'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수남'에게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수남'이 가게를 하루 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소설의 복선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서술 방식이다. 복선은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며, 뒤에 이어질 일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여 독자에게 흥미를 준다.

12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전선 가게의 간판이 떨어지는 통에 '전선 도매집 주인아저씨'가 다친 아가씨의 치료비를 물어 주게 되자 그를 동정하고 있다.

13 '수남'은 '바람'을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도시 사람들은 뜻밖의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히고 한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반갑지 않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이 '바람'을 보고 고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수남'은 '바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 속에서 바람 부는 날 풍경의 아름다움을 아는 이가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고독함을 느낀다. 바람에 대한 도시 사람들과 '수남'의 인식 차이를 통해 도시 사람들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5 '수남'은 '전선 가게 아저씨'의 일을 계기로 돈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주인 영감'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 '수남'은 ㉠과 같은 '주인 영감'의 말이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금전적 손해를 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고깝게 듣고 있다.

16 제시된 부분에는 배달한 물건 값을 끝까지 받아 내려하는 '수남'과 돈이 있어도 물건 값을 주지 않으려 버티는 '××상회 주인'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17 '수남'은 '××상회 주인'이 돈이 있으면서도 물건 값을 주지 않으려 하자 물건 대금(=형광 램프 값)을 받아 내기 위해 은행 막을 돈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18 **서술형** '수남'과 '××상회 주인'은 물건 대금으로 인해 갈등하지만, '수남'이 끝까지 버티고 서서 물건 대금을 악착같이 받아 냄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남'이 물건 대금을 받아 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썼다.	☐

19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신사'의 차에 흠집이 나자 '신사'가 '수남'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수남'은 거부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 '신사'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신사'는 어린 '수남'에게 차 수리비로 오천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내려고 하는 아박하고 냉정한 인물이다.

③ '신사'는 자신의 차가 고급 차임을 강조하며 으스스대고 있다.

⑤ '신사'는 '수남'의 자전거가 자신의 차에 넘어지자 차를 면밀하게 살펴며 생채기를 찾고, 차에 흠집을 찾자 환성을 지르고 팔짝팔짝 뛰는 등 경망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21 '수남'은 자전거를 담보로 잡고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운 '신사'에게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으므로 거세게 저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2 '수남'이 용서를 비는데도 '신사'가 수리비를 받아 내려고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서 담보로 잡자,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23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종의 도둑질을 한 '수남'에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을 한 '수남'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칭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인 영감'의 부도덕한 성품이 드러나며, 이러한 말은 '수남'을 걱정하는 말로 보기 어렵다.

24 '주인 영감'은 잘못된 행동을 한 '수남'을 혼내기는커녕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칭찬하고 있다. '수남'은 이러한 '주인 영감'의 행동을 보고 '주인 영감'이 비양심적인 사람임을 깨닫고 '주인 영감'의 손길이 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5 **서술형** '수남'은 잘못된 행동을 한 자신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뚱뚱'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보아 '누런 뚱뚱'은 탐욕과 부도덕성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26 '수남'은 '낮에 내가 한 짓을 옳은 짓이었을까?'라고 하며,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수남'의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27 '수길'은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마쳐준 보람도 없이 집에서 빈들대고 있었으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⑤ '수길'은 서울 가서 돈 벌고 성공해서 오겠다고 하고 2년 동안 안부 한마디 없었다.

② '수길'은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였다고 하였다.

③ 온 집안 식구는 '수길'에게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였다.

28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짐을 꾸린다. 결심을 굳힌 '수남'의 얼굴은 청순함으로 빛났다고 하였으므로, '수남'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리며 내적 갈등을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아버지'는 '수남'이 서울로 떠날 때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는데, 이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을 두고 그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주인 영감'과 대비된다. 이는 '아버지'가 '수남'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어 줄 수 있는 어른임을 나타낸다.

30 '수남'은 형 '수길'이 도둑질을 해서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형제간이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며 '수길'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는 '수남'의 확고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31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반성하고 양심을 회복하자 '수남'의 얼굴빛은 '누런 뽕빛'에서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변한다. 이러한 '수남'의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양심과 도덕성 회복'이라는 주제가 드러난다.

소단원 평가



252~257쪽

- | | | | | |
|----------------------|------|------|------|---------------------------------------|
| 01 ① | 02 ⑤ | 03 ① | 04 ③ | 05 바람 |
| 06 ② | 07 ⑤ | 08 ⑤ | 09 ④ | 10 ③ |
| 11 ① | 12 ① | 13 ④ | 14 ③ | 15 '누런 뽕
빛'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
| 17 ㉠ - ㉡ - ㉢ - ㉣ - ㉤ | 18 ④ | | | |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소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이다. ①과 같이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해 쓰인 글은 희곡이다.

소설의 특성

허구적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 꾸며 낸 이야기
산문적	서술과 대화에 의한 산문 문학
서사적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
예술적	언어를 통하여 예술성을 드러낸 글

참고 자료

02 '주인 영감'은 손님들이 '수남'에게 알밤을 먹일 때 '수남'이 야학이라도 가서 공부를 해야 할 인물이라고 하며 알밤을 먹이는 손님들을 혼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수남'이 아직 야학에 다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 '주인 영감'이 월급을 짜게 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② (가)에 '수남'의 외양이 묘사되고 있다. '수남'은 불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지만, 목소리는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라서 전화로 늙은이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였다.

③ (나)의 '수남'이는 단골손님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영감에게도 여간 잘 뵈는 게 아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나)와 (다)에서 '수남'은 '주인 영감'이 '수남'은 공부할 사람이라고 말해줄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03 '주인 영감'은 '수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수남'에게 직원 세 명이 해야 할 일을 시키며, 월급도 적게 주는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새로운 직원의 채용을 꺼리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4 '수남'은 장사가 안된다는 '××상회 주인'의 말이 돈을 빨리 안 주려는 변명 같기도 하고, 쉽게는 돈을 안 준다는 공갈 같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회 주인'이 '수남'에게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수남'은 '주인 영감'의 말을 고깝게 듣고 있다.

② (나)에서 '주인 영감'은 손해 볼 것이 걱정되어 '수남'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

④ (다)에서 장사꾼의 생리가 돈을 쌓아 놓고도 돈을 주려 하지 않는 것이며, '수남'은 이것에 문득문득 혐오감까지 느낀다고 하였다.

⑤ (다)~(라)에 물건 대금으로 인한 '수남'과 '××상회 주인'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05 **서술형** (가)를 보면, 도시 사람들은 바람의 의미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뒤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06 (라)에서 '수남'은 장사가 잘 안된다는 '××상회 주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이 모습을 통해 서울에 와서 배운 '상인 철학 제1항'이 '끝까지 버텨서라도 물건값을 받아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의 앞부분에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완자샘의 풀이

어구나 문장의 문맥적 의미는 앞뒤 내용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그러나 이쪽에선~상인 철학 제1항이었다.'의 두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물건 값을) 받아 내야 하는 것=그것=상인 철학 제1항'임을 알 수 있지.

07 '수남'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이 나고, 이로 인해 '수남'과 '신사'는 외적 갈등을 겪게 된다. '신사'는 '수남'에게 차 수리비를 요구하며 자전거를 잡아 놓으려 한다. 결국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는 것으로 갈등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⑤와 같이 '수남'이 '신사'에게 용서를 빌거나, '신사'가 '수남'을 용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이 글에는 '수남'과 '신사'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③ (가)를 통해 '수남'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를 들이받아 갈등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신사'가 '수남'의 자전거를 잡아 놓으면서 갈등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의 앞부분에서 '수남'은 '신사'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흑흑 소리까지 내어' 운다. 즉 '수남'은 '신사'의 동정심을 이용하기 위해 소리 내어 운 것으로, '수남'의 영악스러운 면모가 드러난다.

09 ‘신사’는 ‘수남’이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수리비를 반으로 깎아 주지만, ‘수남’이 그마저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태도가 변한 것이다. 이는 ‘신사’가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 그냥 내뺄 심사’라고 표현한 부분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10 ‘주인 영감’이 (가)에서 ‘수남’을 칭찬한 이유는 ‘수남’이 무사히 돌아와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라)에서 ‘아버지’는 ‘수길’로 인해 몸져누웠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수남’은 자신의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④ (다)에서 ‘수남’은 형 ‘수길’이 도둑질한 것을 되풀이하며 보여 주는 것을 보며 ‘수길’과 형제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몹서리 처졌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11 (라)에서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죄책감보다 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듯 ‘수남’이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 때문이다.

12 (가)의 ‘도둑놈 쫓이라는 소리가 수남이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와, (나)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수남’이 ‘주인 영감’에게 고해바친 ‘자초지종’의 의미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사연’이라고 볼 수 있다.

13 (다)~(라)는 ‘홍길동전’의 일부로, ‘길동’이 갈등을 겪는 것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천비 소생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입신양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다)~(라)의 갈등은 ‘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시대 현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14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짐을 꾸린다.

15 **서술형** ‘수남’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면서 얼굴빛이 누런 동빛에서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바뀐다. 따라서 ‘누런 동빛’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부도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누런 동빛’의 의미를 ‘물질에 대한 탐욕, 부도덕성, 비양심성’과 같은 내용을 담아 서술하였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6 이 작품은 도시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순진한 소년 ‘수남’의 눈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7 **서술형**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 도매상 점원으로 일하는 ‘수남’은 ‘주인 영감’의 보살핌에 육친애를 느낀다(가). 배달을 나간 어느 날 ‘신사’와의 분쟁으로 차 수리비 배상을 요구받고(나),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치게 된다(다).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고민에 빠지고(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마).

평가 기준	확인 ☒
‘수남’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

18 (라)에서 ‘수남’은 자신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다.

(2) 배려하며 말하기

소단원 평가

269쪽

01 ⑤ **02** ⑤ **03** ③: 고맙습니다, 예쁘다, 미안해 등
⑥: 짜증 나, 미워, 재수 없어 등 **04** ③ **05** ⑤

01 휴대 전화, 인터넷 매체 등에서도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하지만,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SNS)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③은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소통할 때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함.’과 같이 고쳐야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02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의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방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과 거리가 멀다.

03 **서술형**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의 실험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쌀밥에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경우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피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경우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고 심한 악취를 풍긴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말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말로 ‘고맙습니다, 예쁘다’와 같은 말이고, 부정적인 말은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말인 ‘짜증 나, 미워’ 등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말인 '고맙습니다', '예쁘다' 등의 단어를 한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들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말인 '짜증 나', '미워' 등의 단어를 한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04 '옥림'은 '세리'의 피아노 연주 실력이 부족함을, '세리'는 '옥림'이 쓴 시의 수준이 낮음을 각각 비꼬며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말하기이다.

오답인 이유 ① '옥림'과 '세리' 모두 '격이 낮고 속된 말'을 뜻하는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② '옥림'과 '세리' 모두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서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④ '옥림'과 '세리'는 가치관의 문제로 다투고 있지 않다.

⑤ '옥림'과 '세리'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다.

05 '옥림'과 '세리'는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옥림'과 '세리'가 상대를 배려하며 말한다면 서로 좋은 감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려하며 말한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의 경우는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대단원 평가



278~283쪽

- 01** ② **02** ④ **03** ⑤ **04** '주인 영감'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의 행동을 칭찬했기 때문이다. **05** ③
06 ⑤ **07** ② **08**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09** ④ **10** ④
11 ② **12**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지 말고 악착같이 돈을 받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13** ② **14** ② **15** ①
16 ① **17** ⑤ **18** ⑤ **19** ① **20** ③
21 ③ **22** ④

01 이 글은 글쓴이가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쓴 소설이다. 소설은 인물의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오답인 이유 ①, ③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 ④는 시, ⑤는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에서 '수남'이 일이 끝나고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열한 시 경이라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러고도 동네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남'이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주인 영감'은 '수남'의 부지런한 행동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수남'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② (가)의 '수남'이는 그 시간(=주인 영감의 따스한 손길에서 육친애를 느끼는 시간)이 좋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구경꾼들은 '수남'에게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라고 충동질을 한다.

⑤ (라)의 '흠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에서 알 수 있다.

03 이 글의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훔친 '수남'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고, '신사'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수남'에게 오천 원을 받아 내기 위해 간악하게 군다. 즉, '주인 영감'과 '신사'는 아직 어린아이인 '수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 이 소설은 이러한 인물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만 좇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 내고 있다.

04 **서술형** '주인 영감'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자 '수남'은 '주인 영감'이 부도덕한 인물임을 깨닫는다. 이를 계기로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남'의 태도(심리)는 긍정적(호감)에서 부정적(비호감, 거부감)으로 변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행동을 서술하였다.	☐
'주인 영감'이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였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05 세차게 부는 '바람'과 이로 인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나자 빠지는 '판자문', 펄럭대는 '함석지붕', 이상한 소리를 내는 '전화 줄'은 모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완자샘의 풀이

소설에서 사용되는 소재는 단순히 물건으로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앞뒤 맥락 속에서 특정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거나 작품의 시대상을 드러 내기도 하며, 사건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도 한다. 여기에서는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06 '수남'은 (다)에서 잘못된 행동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고 있다. 이때 '수남'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편이 되어 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07 (마)에서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는지, 옳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고민하며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②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내적 갈등의 개념

소설에서 갈등은 줄거리의 전개에 긴장감을 더해 주고,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내적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개인 내부의 심리적 모순과 대립에 의한 갈등이며, '양심 ↔ 비양심', '사랑 ↔ 증오', '선의 ↔ 악의' 등의 예가 있다.

08 **서술형** (마)의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에 대해 생각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때 느낀 감정은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남'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
'수남'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사건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

09 이 글의 서술자는 전지적 위치에서 '수남'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심리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

도답인·이유 ①, ②는 1인칭 주인공 시점, ③은 1인칭 관찰자 시점, 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0 '××상회 주인'이 먹이는 알밤에는 애정이 아닌 알미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남'의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했던 것이다.

도답인·이유 ① (나)의 물건 대금을 받으려는 '수남'의 모습을 통해 '수남'의 진득한 성품을 알 수 있다.

②, ③ (다)와 (라)를 통해 '신사'가 외모와는 다르게 경망스럽게 행동하며, 과시욕이 강하고 야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주인의 말과는 달리 손님이 실새 없이 들락거리는 모습에서, '××상회 주인'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가)~(나)에는 물건 대금을 받으려는 '수남'과 이를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도답인·이유 ① '수남'은 좁은 가게에서 물건값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지만, 문을 막고 주인의 장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

③ '수남'이 '신사'에게 적반하장으로 대드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신사'가 '운전사'에게 자물쇠를 주며 자전거에 채우라고 하고 있으나, '운전사'가 도망치는 '수남'을 잡으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수남'이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둑질을 하면서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느낀 것, 즉 자신의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 때문이다.

12 **서술형** '수남'은 서울에 와서 점원으로 일을 하며 돈이 있음에도 주지 않으려는 장사꾼의 생리를 이해하고 악착같이 돈을 받아 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장사꾼의 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악착같이 돈을 받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13 이 글은 '주인 영감'과 '신사'와 같은 인물의 면모를 통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을 비판하고, '수남'의 내적 갈등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정신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즉 산업화 시대에서 양심과 도덕성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신사'는 '수남'이 말로만 해서는 자동차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자동차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수남'의 자전거를 담보로 잡아 두려 하는 것이다.

15 '수남'은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서 급하게 돈을 받아 내려는 장사꾼들이 하는 수를 따라서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순진한 '수남'도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장사꾼들에게 물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제시된 내용은 사용자가 하루에 비속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여 주는 앱으로, 이 앱은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앱을 홍보하는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소년 언어폭력 심각, 대책 강구돼야'이다.

17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말다툼까지 가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삼가라는 뜻의 속담이다. 즉 말을 적게 하라는 내용이므로, 바르고 고운 말의 사용을 강조하는 포스터의 문구와는 거리가 멀다.

18 <보기>는 부정적인 말들로,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 나쁘고 대화를 더 오래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을 들음으로써 생각하는 바를 거짓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19 '비록 짐승이지만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면 어찌 기분이 좋겠습니까?'라는 농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 상대의 감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화를 통해 본받을 수 있는 말하기의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 <보기>의 '욕립'과 '세리'는 모두 공격적인 말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지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21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갈등 유형은 인물의 외적 갈등이다. (가)~(마) 중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이다. (다)에서는 '수남'이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는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도답인·이유 (가)에서는 '××상회 주인'과 '수남'의 인물 간의 갈등이, (나)에서는 '신사'와 '수남'의 인물 간의 갈등이, (라)에서는 '길동'과 사회와의 갈등이, (마)에서는 '욕립'과 '세리'의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22 (라)의 '길동'은 재주가 뛰어나서 모두의 칭찬을 받지만,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길동'의 갈등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출생으로 인해 차별을 하는 사회 제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말고사 1회



284~289쪽

- 01 ② 02 ⑤ 03 ④ 04 감탄사-명사-조사-부사-형용사-부사-동사 05 ② 06 ④
07 ④ 08 ㉠: 마음, 어른 ㉡: 진실, 대한민국 ㉢: 초콜릿, 펜 09 ④ 10 (가)는 '성별'에 따라, (나)는 '세대'에 따라 사회 방언이 나타나고 있다. 11 ② 12 ③
13 ⑤ 14 ① 15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싶다. 16 ③ 17 ④ 18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내어 차 수리비를 물어 주게 된 일을 말한다. 19 ② 20 ② 21 ⑤
22 '누런 동뱀'은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의미한다. 23 ④
24 ⑤ 25 ③

01 '강아지, 어머니, 뒤뚱뒤뚱'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달리다, 자다, 빨강다'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완자쌤의 풀이

'강아지'는 명사, '어머니'는 감탄사, '뒤뚱뒤뚱'은 부사로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아. 한편 '달리다, 자다'는 동사, '빨강다'는 형용사로 문장 속에서 '달리는, 달리지, 달렸다' 등으로 모양이 변해. 우리말에서 가변어는 동사와 형용사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

02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한다. ①~④는 양수사이고, ⑤는 서수사이다.

03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이다. '우글거리다'는 '벌레나 짐승, 사람 따위가 한곳에 뻘뻘하게 많이 모여 자꾸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⑤는 모두 형용사이다. 형용사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를 말한다.

04 **서술형** '어머니'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고, '방'은 명사이며, '이'는 조사이다. '더럽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치우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너무'와 '빨리'는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완자쌤의 풀이

문장을 낱말로 쪼개는 것이 어려울 때는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낱말은 서로 띄어 쓴다는 걸 생각해 보렴.

05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낱말'이다. '사신'은 '나'도 '너'도 아닌 3인칭이므로 '그'로 바꿀 수 있고, '굴뚝'은 사신이 가리켰다는 말로 보아 멀리 있는 사물이므로 '저것'으로 바꿀 수 있다. '연못가'는 '이 누각'이라는

말로 보아 가까이 있는 장소이므로 '여기'로 바꿀 수 있다.

06 ㉠은 동사 '일어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며, ㉡은 명사 '신'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수식언이라고 한다. 수식언의 특징으로는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 줌으로써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과,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④는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다.

07 고유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다 보니 대개 하나의 낱말이 여러 뜻으로 쓰인다. 한편 고유어보다 구체적이고 분화된 뜻을 지닌 것은 한자어이다.

오답인 이유 ①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②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분화된 뜻을 가지고 있고, 외래어는 고유어가 대체하기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③ 고유어는 '푸르다, 파랗다, 푸르스름하다'처럼 색채어가 발달하였으며, 농경 사회에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말이 많은 특징이 있다.

⑤ 고유어는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닌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다.

08 **서술형** 어종에 따른 어휘의 유형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 '마음, 어른'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고유어이고, '진실(眞實),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초콜릿(chocolate), 펜(pen)'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이다.

09 (가)는 방송이라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대화한 것이며, (나)는 방송 후에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한 것이다. 지역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에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 이질감과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것은 지역 방언의 특징이다.

② 표준어는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③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 소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⑤ 개인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로 보아야 한다.

10 **서술형** 사회 방언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다. (가)는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서 '문화 상품권'을 '문상'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세대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서 사회 방언이 나타나는 요인을 '성별'로 썼다.	☐
(나)에서 사회 방언이 나타나는 요인을 '세대'로 썼다.	☐

11 학술이나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말은 전문어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집단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은 은어이고,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은 속어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⑤ 은어의 특성이다. ③ 은어는 외부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④ 전문어의 특성이다.

12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며, 이 글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인 지역 방언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13 (다)에서 '수남이'는 피죄직한 이불을 덮고 자며, 점원이 적어도 세 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며 벅차한다. 이를 볼 때 '주인 영감'이 넉넉한 성품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수남'이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수남'이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수남'이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수남'이 열여섯 살이며, 불이 토실하고 눈 속이 깨끗한 외양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4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가)~(다)는 발단, (라)는 '전개'에 해당한다. '전개'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오답인 이유 ②는 '위기', ③은 '발단', ④는 '결말', ⑤는 '절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서술형** '수남이는 한 번도 주인 영감님에게 하다못해 야학이라도 들어가 공부를 해 보고 싶단 말을 비친 적이 없다.'와 '자기 또래의 고등학생만 보면 가슴이 찢릿찢릿하던 수남이다.'를 통해 '수남'이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남이의 비밀'이 '수남'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임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6 (가)에서는 '신사'와 '수남'이 차 수리비 문제로 갈등하고 있으므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는 '길동'이 적서 차별이 존재하는 조선 시대에 천비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어 갈등하고 있으므로 인물과 사회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7 (가)에서 '신사'는 차체의 흠집을 발견하고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있다. 또한 아직 어린 '수남'에게 큰 금액의 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사'는 경박스러우며 인정이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8 **서술형** (가)에서 '수남'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흠집을 냈고, 이로 인해 '신사'가 '수남'에게 수리비를 물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남'이 '신사'의 차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함을 서술하였다.	☐
'수남'의 자전거가 쓰러지며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낸 것이 원인임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9 '수남'은 '신사'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파악하고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용서를 받으려 한다. '수남'은 대체적으로 순박하고 순진한 인물이지만, 이 장면에서는 영악한 면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수남'은 자신이 겪는 일을 끔찍하다고 여기며 울음이 솟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수남'은 '신사'가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생각보다 큰 액수를 요구하자 울음을 삼킬 정도로 당황하였다.

④ '길동'은 양반을 아버지로 두었으나, 어머니가 천비이므로 서열 신분임을 알 수 있다.

⑤ 천한 종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이자 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던 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20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을 생각하며 자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해 내적으로 갈등한다. 또한 자기가 도둑질을 하면서 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기 내부의 부도덕성을 인지하고 더욱 죄책감을 느낀다.

21 (다)에서 '수남'은 '자기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주인 영감'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도덕성을 회복한다. 이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지키며 살자는 이 글의 주제를 알 수 있다.

22 **서술형** '수남'이 자신 내부의 부도덕성을 깨닫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어른이 없는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할 때 비로소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뚱뚱'이 가신다. 따라서 '누런 뚱뚱'은 비도덕성·비양심성을 나타낸다. '누런 뚱뚱'이 가시는 것은 '수남'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도덕성을 회복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누런 뚱뚱'이 부도덕성 혹은 비양심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3 (가)의 다큐멘터리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한 것이다. (가)의 글쓴이는 실험 대상이 쌀밥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여기에는 말과 상관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사물조차 말에 영향을 받는데, 인간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24 ㉠은 긍정적인 말이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에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5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옥림'이 먼저 사과했을 때, '세리'도 '옥림'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다. ㉢과 같이 '세리'가 '옥림'의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옥림'과 상의 없이 피아노를 옮긴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자쌤의 풀이

먼저 사과를 하는 '옥림'에게 '세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야, 나도 너와 상의하지 않고 피아노를 옮겨서 미안해.' 혹은 '나도 잘못이 있는데, 네가 먼저 사과해 줘서 고마워.'처럼 '옥림'을 배려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지?

기말고사 2회



290~295쪽

- 01** ㉠ 가변어, ㉡ 독립언, ㉢ 대명사 **02** ㉡ **03** ㉡
04 용언은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또는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05** ㉡ **06** ㉢
07 고유어는 색깔을 표현하는 말(또는 색채어)이 발달하였다(또는 다양하다). **08** ㉡ **09** ㉢ **10** (나)
 에는 지역 방언이 사용되었다.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수남'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하였음을 나타낸다.
22 ㉢ **23** ㉡ **24** ㉡ **25** ㉡

01 **서술형** 품사는 형태가 변하나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뉜다.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뉘고, 의미에 따라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로 나뉜다.

02 ㉠~㉣는 모두 수사이다. 그중 ㉠과 ㉢는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이며, ㉡와 ㉣는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수사는 체언으로서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품사이다. 따라서 ㉡는 알맞지 않다.

03 ㉠은 '가수'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며, ㉡은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수식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며,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04 **서술형** 밑줄 친 말은 '행복하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용언의 특징은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문장에서 쓰인다는 상황을 밝혔다.	☐
형태가 변한다(또는 활용된다)는 특성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피다'는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꽃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다.

모답안 이유 ㉠ '아'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꽃'은 명사로,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 '이'는 명사 '꽃'에 붙어 '꽃'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활짝'은 용언 '피었구나'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06 ㉡의 '봤어'는 동사 '보다'가 활용된 모습이다. 동사는 '-는다/-다'가 붙어서 '본다'로, '-아라/-어라'가 붙어서 '보아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모습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형용사'이다.

모답안 이유 ㉠ ㉠ '피꼬리'는 명사이다. 명사를 포함해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체가 된다.

㉡ ㉡ '를'은 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만 쓰일 수 있다.

㉣ ㉣ '정말'은 '많다'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이며, 부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 '응'은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07 **서술형** 고유어는 '붉다'라는 한 계열의 색을 색의 정도나 느낌에 따라 '불그스름하다', '빨갳다', '시뻘겋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즉 우리 고유어는 색채어가 발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색깔을 표현하는 말(또는 색채어)이 발달하였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완자쌤의 풀이

오랜 기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해 온 고유어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어, 우리 고유어는 색채어가 다양하고, 농사와 관련된 낱말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지.

08 '주말(週末), 가족(家族), 친구(親舊)'는 한자어이고, '뮤지컬(musical), 발레(ballet)'는 외래어이다.



완자쌤의 풀이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고,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야.

09 고유어에 비해 뜻이 분화된 경우가 많은 단어의 종류는 한자어이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말로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

10 **서술형** (가)는 표준어를, (나)는 지역 방언을 사용한 것이다. 지역 방언에는 해당 지역의 향토색이 묻어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낼 수 있고,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 등을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지역 방언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1 ‘인강(인터넷 강의), 열공(열심히 공부하다), 생선(생일 선물)’ 등은 원래 있는 말을 짧게 줄인 말로, 청소년들끼리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속한 ‘할아버지’는 ‘손녀’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오답인 이유** ① 이 대화에서는 지역 방언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할아버지’가 ‘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은 <보기>만으로 알 수 없다.
 ④ 은어는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 사용하는 말이다.
 ⑤ ‘인터넷 강의’는 모를 수 있으나, ‘열심히 공부하다’나 ‘생일 선물’, ‘구두’ 등은 할아버지도 알 수 있는 사물이다.

12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에서 또는 인물 사이나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갈등의 고조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 방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④와 같이 당시 사회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배경’이다.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작가의 상상으로 창조된 작품 속 등장인물
사건	등장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과 행동
배경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나 장소

13 사람을 더 쓰기 싫어서 ‘수남’에게 여러 사람 몫의 일을 맡기는 ‘주인 영감’을 보고도 ‘고마운 어른’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주인 영감’이 ‘수남’을 두고 직접 ‘이런 순진한 놈’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수남’의 순수하고 순진한 성품이 드러난다.

참고 자료

14 (가)에서 남들이 ‘주인 영감’에게 일손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면 ‘주인 영감’은 몹시 싫어하며 ‘수남’이 물들까 봐 사람을 더 쓰지 않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주인 영감’은 ‘수남’에게 세 사람이 할 일을 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 영감’은 돈을 더 쓰지 않기 위해 점원 채용을 꺼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5 ‘수남’은 바람 부는 서울의 풍경이 흥흥하고 을씨년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골의 바람 부는 날 풍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이로 보아, ‘수남’이 바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인 이유** ① ‘수남’이를 고독하게 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수남’은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이 흥흥하고 을씨년스럽다고 하며 부정적으로 묘사하였지만, 시골의 바람 부는 날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이 바람에 우렁차게 포효한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서울을 부정적인 공간으로 묘사한 것을 통해, 작가가 물질을 중시하는 도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부정적이고 음산한 분위기는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사건을 암시한다.

16 (다)에서는 돈을 받아 가려는 ‘수남’과 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이 겪는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라)에서는 차 수리비를 줄 수 없는 ‘수남’과 수리비를 받으려는 ‘신사’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17 (마)에서 ‘수남’의 형은 돈을 벌지 못해 도둑질을 한 인물이므로, 형이 돈을 많이 벌어 온 것을 보고 ‘수남’이 서울로 가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인 이유** ① ‘수남’의 형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 없어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쳤다.
 ②, ③ ‘수남’은 ‘도둑놈과 형제간’이란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몹서리가 처질 정도로 형을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형에게 실망하였다.
 ④ ‘아버지’는 형이 도둑질한 사실을 알자 화병으로 몸져눕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다.

18 ㉠에서 ‘수남’이 장사꾼에게 느끼는 혐오감은 (다)의 ‘××상회 주인’에게서 비롯된 감정이다. ‘수남’은 (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인 영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수남’이 혹사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신사’가 ‘수남’을 전혀 상대하지 않고 돈을 가져오라는 말만 한 채 빌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으로 보아 물인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④ (라)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남’이 울거나 화를 내서 더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를 기다리는 눈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서울로 가는 ‘수남’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며 당부하는 모습으로 보아 ‘아버지’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 사람들과 대조적이다.

19 (라)에서 '길동'은 신분 제도가 엄격한 조선 시대에 서자로 태어나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사회 현실로 인해 갈등하고 있다.

- ②, ③ (가)에서 '수남'은 '신사'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④ '길동'은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외적 갈등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것이다.
 ⑤ '수남'은 도둑질을 한 후, 낮에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20 (다)에서 '수남'은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있는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라)에서 '길동'은 출가를 결심하며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21 **서술형**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도시에서 도덕성을 잃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똥빛'이 가셨다는 것은 '수남'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였음을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남'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수남'이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완자쌤의 풀이

이 작품 전체를 보면 '누런 똥빛'은 비도덕성을 나타내.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일을 칭찬하던 '주인 영감'의 얼굴빛, 도둑질을 해서 집에 돌아온 '수남'의 형 '수길'의 얼굴빛, 그리고 자전거를 훔친 뒤 죄책감으로 갈등하는 '수남'의 얼굴빛이 모두 '누런 똥빛'으로 묘사되고 있어.

22 <보기>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실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 말이 가지는 힘이 크다는 걸 깨닫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3 '손으로 하는 폭력'은 언어폭력이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표현으로 보아야 하므로, ⑤는 배려하는 말하기를 권하는 표어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24 '옥림'과 '세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난이 담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리'도 '옥림'의 말을 듣고 "허, 초등학교도 그 정도는 쓰겠다. 우정으로 가는 계단? 유치해서 정말……."이라고 말하며, '옥림'에게 대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은 '너 전달법'이고, ㉡은 '나 전달법'이다. ㉡의 상대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에 해당한다.

완자쌤의 풀이

'나 전달법'이란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행동을 표현하는 '너 전달법'과 달리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면서도 상대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

